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비교 연구

2013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소 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창수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irectional Express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소 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창수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irectional Express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소 림

소림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비교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소림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중 한 가지가 한국어의 부사어 표현이 중국어의 개사구와 대응할 때이다. 부사어를 이루는 성분인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은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 양어가 보여주는 부사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그들 간의 대응규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어의 부사어는 부사, 부사격조사 등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중국인이 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기가 힘들다. 동시에 한국인이 중국어를 배울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사어로 쓰이는 개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중국어 개사는 아주 다양하고 동사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혼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한·중 양어의 방향 표시 표현어들을 체계적인 대응관계를 밝히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방향 표시 표현에 관계하는 기제들을 각 언어별로 살펴보고 각각의 기제들이 어떠한 제약조건과 의미기능으로 대응되는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양국의 언어 가운데서 오해의 소지가 크고 올바른 이해와 학습이 요구되는 중국어 개사의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조사와 이를 중심으로 한 구절 표현들을 서로 대응시켜 그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 연구함으로서

한·중 양어 학습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돋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은 연구 목적, 범위 및 선행연구이며, 2장은 방향표시 표현어의 개념과 기제 등에 대한 고찰을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방향표시의 방법, 즉 한국어 부사구와 중국어 개사구가 이루는 방법을 방향성의 의미별로 논의한다. 한국어 부사어에 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살피고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리고 중국어 개사의 정의와 특정을 설명하고 어원적 문제도 살펴본다. 아울러 중국어에서 많이 혼용하는 방향성 개사를 중의 몇 가지를 방향성의 의미별로 대조·비교해 보았다.

제3장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개별적인 대응 관계를 각 기제별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대응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대응 관계를 총괄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각 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였다.

【주요어】 한국어 중국어 방향표시 부사어 방향성 조사 부사격조사 보조사
개사 비교 대조 대응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 목적과 범위	1
1.2 선행연구	6
제 2 장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개념과 방법	14
2.1 방향표시 표현어의 개념	10
2.2 한국어의 방향표시 방법	18
2.3 중국어의 방향표시 방법	28
제 3 장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형태 대응	47
3.1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47
3.1.1 '-에'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47
3.1.2 '-에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48
3.1.3 '-(으)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48
3.1.4 '-부터'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50
3.1.5 '-까지'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51
3.1.6 '-을/를 향하여'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52
3.1.7 '-의 쪽으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52
3.2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54
3.2.1 '朝'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54
3.2.2 '向'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55
3.2.3 '往'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56

3.2.4 '从'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57
3.2.5 '由'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59
3.2.6 '自'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60
3.2.7 '打'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60
3.2.8 '到'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61
제 4 장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체계적 대응	65
4.1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의미기능 비교	65
4.2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종합적 대응관계	71
제 5 장 결 론	74
【참고문헌】	77
ABSTRACT	80

【 표 목 차 】

[표 1] 부사격조사와 보조사의 의미기능	23
[표 2] 한국어 방향표시 방법	25
[표 3] 고대 개사	31
[표 4] '朝'와 '向'의 비교	39
[표 5] '向'과 '往'의 비교	40
[표 6] '朝, 向, 往'의 비교	41
[표 7] '从, 由, 自, 打'의 비교	45
[표 8] 방향표시 개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비교	63
[표 9] '-에'와 개사의 용법	65
[표 10] '-로'와 개사의 용법	66
[표 11] '-에서'와 개사의 용법	68
[표 12] '-부터, -까지'와 개사의 용법	69
[표 13] '-을/를 향해야, -의 쪽으로'와 개사의 용법	69

【 그 립 목 차 】

〈그림 1〉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의미기능별 대응관계	9
〈그림 2〉 방향표시 격조사의 의미	25
〈그림 3〉 개사 구문의 구조	36
〈그림 4〉 '朝, 向, 往'의 사용 범주	42
〈그림 5〉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대응관계	71
〈그림 6〉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의미기능별 대응관계	72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목적과 범위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로 20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두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도 많아졌다. 한·중 양국은 지정학(地政學)적으로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진행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들도 많이 이루었다. 다방면에서 한·중 양국 간의 보다 활성화된 교류와 상호 이해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양국 간의 언어장벽을 낮추는 일이다.

한·중 양국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의 언어·문화를 연구하는 한국 학생의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못지않게 한국을 연구하고자 하는 중국 학생들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언어에 대한 교육·학습 이론 못지않게 양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는 비교·대조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차이점도 많지만 공통점도 적지 않다. 두 언어는 계통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많은 교섭의 역사 속에서 어휘적인 공통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의 언어에서 어휘가 차지가 있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어의 많은 어휘가 중국어로부터 차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두 언어의 학습자들에게는 분명 좋은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언어 사이에는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한 문법적 공통성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각 상대의 말을 배울 때 공통점은 쉽게 느끼면서도 차이점은 어렵게 느끼기 마련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통점은 비슷한 한자어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한국어와 중

국어의 차이점은 훨씬 더 많다. 한국인 학습자가 중국어를 배울 때는 성조(聲調)¹⁾, 다음자(多音字)²⁾, 개사(介词) 등을 어려워한다. 동시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다의어(多義語)³⁾, 조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한국어에 특히 발달된 조사와 어미의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중국어는 고립어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를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조사 체계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의 여러 가지 용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중국어에서는 주된 문장 성분을 위치를 통해 나타내므로 한국어 조사의 다양한 용법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격조사를 보면 한국어 주어에는 '은/는'이나 '이/가'를 붙일 수 있다. 실제의 주격조사는 '이/가'이지만 대부분의 주어에 '은/는'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은/는'을 주격조사로 잘못 인식하기도 한다. 중국어는 주어격 조사가 없고 대체로 문장 앞에 위치한 성분이 주어가 된다.

한·중 양어의 대응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것은 부사어의 표현에서 나타난다. 부사어는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언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주요한 성분이다.⁴⁾ 따라서 부사어의 연구는 언어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중국어의 유형에 따라 문법적 기제가 다른 것이라고 해도 일부 조사에 의해 형성되는 부사어들은 중국어의 개사 구문과 많이 닮은 점이 있다. 즉 두 언어는 일부 문법적 요소의 기제가 다소 다르더라도 언어 표현에 있어서 기제적인 대응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한국어의 조사는 명사구 다음에 붙어 격(格)이나 여러 의미기능을 표시하는 접사 성격의 기능형태소이다. 반면에 중국어의 개사는 명사구 앞에 위치하여

1) 중국어 발음이 제1성(ㄱ), 제2성(ㄴ), 제3성(ㅋ), 제4성(ㅌ), 그리고 경성(輕聲) 5 가지 있다. 하지만 한국어 발음에는 성조가 없다.

2) 중국어에 같은 글자인데 발음이 여러 가지 있고 뜻도 다르다.

3) 발음이 똑같은데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같은 단어 '사고'인데 뜻은 '事故', '思考', '史庫' 등 여러 가지 있다.

4) 하지만 부사어는 필수적으로 제시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순이를 아내로 삼았다."의 '아내로'와 같이 필수적인 부사어도 있다.

주로 부사어가 가지는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즉 개사는 명사나 대명사로 이루어진 구나 절을 지배하여 주어에 대한 해당 명사구나 절의 방향이나 대상을 표현하는 단어 성격의 허사(虛辭)이다. 이때 개사가 지배하는 명사나 대명사는 개사의 목적어로 볼 수 있다. 개사가 붙은 구나 절은 다시 개사구가 되어 관형어(定語), 부사어(狀語), 보어(補語)의 역할을 한다.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는 의미나 기능상에서 여러 가지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사용 방법이나 범위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양 언어의 학습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 언어를 배울 때 조사와 개사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한국어의 '-에', '-에서', '-(으)로'와 같은 조사에 대한 정확한 용법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어의 개사의 용법 또한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지 않으면 막연히 개사와 한국어의 특정 조사들의 기능을 같은 것으로 보아 문법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를 전반적으로 대조하거나 '-에', '-에서', '-에게', '-(으)로' 등 몇 개만 대조하는 것으로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어의 조사와 개사의 범주적 통일성이나 용법상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한·중 양어의 대비적 연구 중 주로 방향을 표시하는 한국어 부사어와 중국어 개사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양국의 언어 가운데서 오해의 소지가 크고 올바른 이해와 학습이 요구되는 중국어 개사의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조사와 대조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돋고자 한 것이다.

한국어에서 부사어를 만드는 방식은 부사 자체로 부사어가 되는 경우, 명사구에 부사격조사를 붙이는 경우, 용언의 부사형이 부사어가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부사격조사가 주로 중국어의 개사구와 대응하게 된다. 중국어 개사는 시간개사, 장소개사, 대상개사, 방식개사, 목적개사, 비교개사 등이 있다. 한국어의 부사격조사도 이러한 의미기능을 가지므로 대체로 중국어의 개사에 대응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한·중 비교·대조 연구는 한자어를 비롯한 실사(實辭)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허사(虛辭)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기존 연구들에서 한국어의 부사어와 중국어의 부사어를 다룬 논문들은 대체로 중국어 개사의 용법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조사 사용에 대한 오류를 분석한 것이지만, 이 논의에서는 두 범주의 체계적인 대비를 보이면서 양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고창수(2013)에서는 언어의 비교 연구는 원래 여러 언어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라고 하였다. 즉 '언어 비교'라는 용어는 계통론의 전문 용어로 서로 친연 관계에 있는 언어들을 비교한다는 뜻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조'라는 용어는 친연 관계가 없는 언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교는 공통성을 강조하고, 대조는 차이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언어 사이의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라는 용어의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창수 2013). 지금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중국어와의 대조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된 점이 있지만 공통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척할 분야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조사 등과 중국어 개사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한국어 부사어와 중국어 부사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문법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개사 전체를 모두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사의 여러 범주 중에서 한 방면만을 택해서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조사와 대비하였다. 부사어의 종류와 의미는 매우 다양한데 본 논문에서는 주로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어에 논의를 한정할 것이다. 한국어 방향성 부사어는 주로 명사 뒤에 방향성 조사가 붙는 형식이기 때문에 방향성 부사격조사와 보조사, 그리고 용언의 부사형을 이용한 일부 구절들이 중국어의 개사구문과 대응되는 대상이 된다.

방향을 표시하는 문장은 실생활에서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어디에서 출발하거나 어디에 도착한다는 표현들은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중 양어의 방향표시 표현어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양 언어의 학습자들에게 기본적인 표현을 익히는 기초적인 교육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려면 비교하는 대상의 범주를

먼저 설정해야 된다. 따라서 먼저 방향표시 표현어의 범주를 검토하고 방향표시 표현어의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그 다음 방향성 부사어의 방향성의 여러 의미 기능에 따라 양어의 대응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어의 '방향' 표시 표현어들의 문법 범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어가 가지는 문법 범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대응이 정연하게 나타나는 점을 부각시키도록 하겠다. 특히 조사와 개사가 가지는 범주적 동일점과 차이점이 양어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 선행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부사어의 비교 연구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⁵⁾ 21세기에 들면서 양어 부사어에 관한 비교 연구들이 점차 늘었으나 아직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양어에서 부사어를 구성하는 조사와 중국개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중국어 개사의 용법을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의 조사 사용 오류를 분석한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난 최근에는 중국어 개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벗어나 중국어 개사와 한국어 조사의 비교 연구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금평(2008), 진다위(2011) 등은 한·중 양어의 부사어 전체를 비교한 것이며, 슬지엔(2009), 한옥(2009), 고비(2009), 황정숙(2009) 등은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중국어 개사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⁶⁾

먼저 부사어 전체를 비교 연구하는 논문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양금평(2008:8-15)에서는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특성과 분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미상의 기준으로 나눈 한국어와 중국어 부사어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에', '-에서', '-에게'로 된 부사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들을 의미별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부사어의 설정 기준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어에서 체언 뒤에 여러 가지 부사격조사가 붙으면 부사어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개사가 체언 앞에 놓여 개사 구를 이루어서 부사어나 다른 문장성분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조사 '-에'가 행동의 진행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쓰일 경우 '-로 이동하여'의 의미를 표시한다. 여기서 목적지를 나타내는 '에'가 이동 동사와 쓰일 때는 중국어 개사 '到'와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도착점을 나타내는 '-로'는 출발시의 목표점이나 경유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중국어에서

5) 崔健(1999), 柳英綠(1999)는 한국어 부사어와 중국어 부사어 사이의 대응 관계를 설명하고 기술하였다. 물론 그 전에 박덕준·박종한(1996), 이화영(1998)에서도 '給', '把' 등 개사와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각 개사의 개별적인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두 언어의 체계적 대응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교 연구로 볼 수 없다.

6) 다만 한옥(2009), 고비(2009), 황정숙(2009)의 논문에서는 한국어 조사 중 몇 가지만 골라 중국어 개사와 대조하였다.

는 각각 개사 '向', '从'이 쓰여 부사어가 된다.

(1) ㄱ. 나는 대구에 도착했다. (도착점)

我到大邱了.

*나는 대구로 도착했다.

ㄴ. 나는 대구로 떠났다. (목표점)

我向大邱去了.

*나는 대구에 떠났다.

ㄷ. 나는 저 길로 돌아서 집에 갔다. (경유지)

我从那条路回到家了.

*나는 저 길에 돌아서 집에 갔다.

진다위(2011)에서는 한·중 부사어의 정의, 기능 및 분류를 설명하고 양어의 부사어를 비교하였다. 이때의 분류 기준은 의미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진다위(2011)에서 한국어 부사어의 형태나 성분 구조에 따른 분류는 본 논의와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진다위(2011)에서는 장소 부사어, 출처 부사어 등만을 다루고 방향 표시 부사어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단지 문장 속 부사어의 위치를 비교할 때, 정도 부사어와 방향 부사어, 그리고 출처 부사어와 방향 부사어들이 한 문장에서 어떤 순서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테면 출처 부사어보다 방향 부사어가 동사와 가까운 것이 자연스런 어순이고 출처 부사어는 동작의 시작, 방향 부사어는 동작 실현의 방향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출처-방향'의 순서로 짹을 지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아래 (2)를 보면 두 언어의 부사어는 '출처-방향'의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도 '-(으)로'에 비해 '-에 서'가 앞서야 하고, 중국어에서도 '往'에 비해 '从'이 앞서야 한다.

(2) 나는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갔다.

我从教室往操场走了.

*나는 운동장으로 교실에서 갔다.

*我往操场从教室走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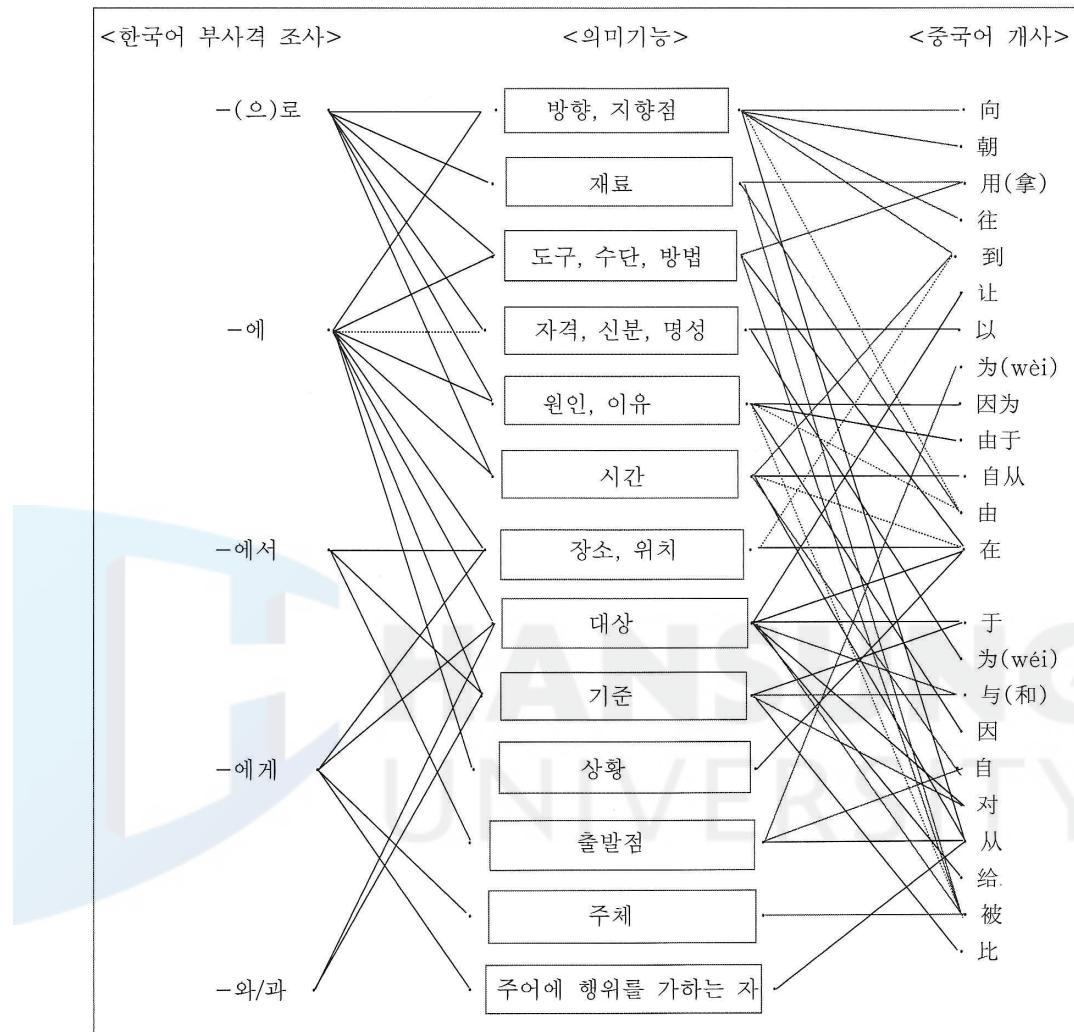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중국어 개사를 대조한 연구들이 있다.

슬지엔(2010)에서는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정의 및 분류를 나열하고 '-로', '-에', '-에서', '-에게'에 대해 각 의미별로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논의하였다. 슬지엔(2010:22-77)에서는 부사격조사 모두를 열거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의미 기능이 많고 사용 빈도가 높은 '-로', '-에', '-에서', '-에게', '-와/과'에 관하여 중심적으로 논의하였다.

슬지엔(2010:22-26)에서는 '-로'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바로 방향이라고 하였다. 조사 '-로'가 목적지를 나타낼 때 중국어 개사 '到'와 대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쪽, 방향, 방면'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의 쪽으로', '-을 향하여'의 뜻을 나타낸다. 방향을 나타낼 때 한국어에서는 단지 조사 '-로'만으로 표현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개사 '向, 往, 朝'의 세 가지 개사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到'는 원래 동사 '到(도착하다)'에서 변해 왔기 때문에 개사로 쓰일 때 주로 '목적지, 도착지'를 나타내고 '向, 往, 朝'와 달리 '방향'을 나타낼 수 없다. '向, 往, 朝'는 중국어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들이지만 이동의 방법, 상태의 지속성과 화자의 의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관점은 앞서 언급한 양금평(2008)과 다르다. 양금평(2008)에서는 이 경우 모두 '到'가 쓰인다고 하였다.

결국 슬지엔(2010)에서는 한국어 부사격조사가 중국어 개사에 대응하는 의미기능은 13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어 부사격조사는 '-로', '-에', '-에서', '-에게', '-와/과' 등 다섯 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들이 중국어에서는 '到', '在', '向', '由' 등의 23 개의 개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같은 의미기능에 있어 여러 가지의 의미를 보이는 경우에 한국어 부사격조사도, 중국어 개사도 유의관계를 보이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부사격조사, 개사가 동원되어야만 서로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부사격조사를 사용할 때 오류가 나타

나는 원인을 밝히기도 하였다.⁷⁾



〈그림 1〉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의미기능별

대응관계 (슬지엔 2010:110~111)

위의 〈그림 1〉은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중국어 개사 의미기능별로의 대응관

7)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중국어 개사는 의미와 기능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중국어 개사가 완전히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사실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중국어 개사는 용법과 의미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쉽게 혼동하는 것이다.

계를 지시하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 한국어 부사격조사 '-(으)로'의 의미 기능은 '방향, 재료, 도구, 자격, 원인, 시간' 등 6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방향' 기능에 대응하는 중국어 개사는 '向, 朝, 往, 到, 由, 从'이고 '재료' 기능에 대응하는 중국어 개사는 '用(拿), 拿, 被'이다. 한국어 부사격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응관계는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한옥(2009)에서는 '-로', '-에'와 '到'의 의미 및 대응관계를 논의하였다. 한국어에서는 방향을 표현하는 형식과 처소를 표현하는 형식 간에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나는 날마다 도서관에(으로, 을, ɸ) 가요.

(3)에서 '-로', '-에'는 부사격조사로 방향을 나타낸다. '-을'은 목적격조사이지만 방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발화에서는 조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NP+격조사로 구성된 '도서관에',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도서관ɸ'은 거의 통일된 의미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사에 연관되어 있는 각각의 조사들의 의미 역할이 과연 같은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로'와 '-에'는 '到'의 모든 의미와 골고루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로', '-에'가 중국어와 대응될 때, '到'와 관련된 대응어는 주로 방향과 처소 항목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의미는 '朝, 向, 往' 등 개사와 동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로', '-에'(특히 '-에')가 '到'에 비하여 가지는 의미가 다양하고, 공통적으로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동사 앞에 위치하는 '到'는 '-로'와 동사 뒤에 위치하는 '到'는 '-에'와 대응된다.

한옥(2009:6)에서는 한국어와 대조하여 진행하는 관계로 편의상 개사를 '전치사'로 호칭하였다. 중국어 문법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서양 문법의 영향으로 전치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옥(2009:7)에서는 한국어의 부사격조사를 후치사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까지, 밖에, 부터, 보다' 등의 보조사는 격으로 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에서 방향성을 표시하는 부사에 참여하는 부사격조사와 보조사들을 후치사라는 용어로 아우를 수 있다고 본다. 결론을 보면 한옥(2009)에서는 중

국어 '到'와 한국어 부사격조사 '-로, -에'의 대응 관계를 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권 학습자는 '-로'와 '-에'의 사용에 대한 오류 조사를 진행했고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였다.⁸⁾ 그리고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고비(2009)에서 한국어 조사 '-로', '-에', '-에서', '-에게'의 의미와 대응하는 중국어 개사를 논의하였다. 한국어의 조사는 전통적으로 격조사와 보조사로 구분하고 보조사 또는 특수조사로는 '-도', '-만', '-는' 등을 인정하고 있다. 고비(2009:24)에서는 한국어는 구체적인 방향, 장소나 추상적인 방향, 공간 또한 행동의 경로를 모두 조사 '-로'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중국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각각 개사 '向', '朝', '往', '到', '从' 등으로 표현한다. 행동이 진행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쓰일 경우 조사 '-에'는 중국어 개사 '到'와 대응할 수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드나듦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 중국어 개사 '到' 혹은 '在'와 대응할 수 있다.

목적지를 나타내는 조사 '-에'와 '-로'는 서로 차이가 있다.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경우 '-로'는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고 '-에'는 이동의 도착점 혹은 목적지를 나타낸다. 중국어 개사의 표현도 이러한 차이가 있다. 도착점을 나타내는 '-에'는 개사 '到'가 쓰여 바로 장소 목적지를 가지지만 목표점과 경유지를 나타내는 '-로'는 각각 개사 '向', '从'이 쓰여 문장에서 부사어가 된다. 결국 고비(2009)는 한·중 양국 학습자들의 상대방의 언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사격조사와 개사의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 분석을 살피고, 용법을 익히는 것은 쌍방의 동질성에 기초를 두고 이질성에 역점을 두어 가르치고 학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정숙(2009:13)에서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에서, 에게, 로'의 의미를 비교하고, 한국어 격조사와 중국어 개사를 대응시켰다. 그리고 부사격조사 '에, 에서, 에게, 로'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연구하였다. 한국어에서 진행방향을 나타낼 때 흔히 부사격조사 '로'로 나타내지만 '에'로 나타낼 경우도 있다. '에'

8) 오류가 생기는 요인은 첫째, '-로'와 '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이다. 둘째, 문장에서 사용되는 어휘 의미를 모르는 경우이다. 특히 특정 선행어와 서술어의 결합을 처음 접했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로'와 '-에'가 통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는 도착하려는 한 지점을 나타내는 명사와 어울려 그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부사격조사 '로'가 나타내는 제일 대표적인 뜻이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의 '방향'은 주어가 도착하려는 '목표점'을 향한 방향이다. 이때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개사 '向', '往', '朝'와 동사 '到'이다.

또한 황정숙(2009)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들은 발생하는 오류들 가운데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국어 조사 중의 부사격조사 '에', '에서', '에', '로'와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조사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개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에 관한 한국인들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고창수(2012)에서 한국어 후치사와 중국어 개사의 단어적 성격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중국어 개사의 단어적 성격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단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⁹⁾ 한국어의 후치사도 격표시자로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어적 성격도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조사와 개사의 비교 혹은 대조 연구는 아니지만, 두 문법 요소의 범주적 공통성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한·중 양어의 비교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어 조사에 대한 연구들은 무수히 많지만 주로 부사격조사의 범주적 성격 및 분류 체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문법적인 연구로 최현배(1977)에서는 조사 '에'가 자리토씨 중에서 어찌자리토(副詞格助詞)의 하위분류 항목인 곳자리토(處所格助詞) 그것도 '닿는데(落着點)'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광호(1984)에서는 '-에'와 '-에서'가 나타내주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그들을 체계 있게 정립하기 위하여 [Locative], [Arrival], [Existence] 등의 의미자질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에' 의미자질은 [+Locative, +Arrival, -Existence]이고, '-에서' 의미자질은 [+Locative, -Arrival, +Existence]이다.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부사격조사를 체언에 조사를 붙여 쳐격(處格) · 여격(與格) · 조격(造格) 등의 격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서정수(1996)에서는 부사격조사를 후치사로 부르며 후치사가 명사구와 결합한 것으로서 사격적 기능을 보인다는 주장을 하였다.

9) 여기서 후치사는 구조격조사인 '이/가', '을/를', '의'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를 의미한다.

최근의 연구로는 김원경(2000), 임동훈(2002) 등이 있다. 김원경(2000)에서는 부사격조사를 '-에', '-(으)로', '-와/과'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본유격으로 호칭하였다. 이에 대해 임동훈(2002)에서는 부사격조사를 '-에', '-(으)로', '-와/과'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의미격 조사로 호칭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연구에서 바라보는 부사격의 개념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부사격조사는 전통문법 이래 처소나 방향 혹은 공동의 의미를 가지는 격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보면 이 논문들에서 모두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에 치중하여 한국어 부사어와 중국어 부사어 및 부사어가 된 성분인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양 어 학습자들이 이 부분의 학습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 등을 깊이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논문들에서는 한·중 부사어 체계를 세분하여 대응하는 범주를 제안하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쉽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 한국어와 중국어가 대응하는 범주를 하나의 대응 체계로 귀납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하겠다.

제 2 장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개념과 방법

2.1 방향표시 표현어의 개념

방향표시 표현어는 한 문장에서 방향을 표시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은 성분적으로 부사어의 형태로 나타나고 의미적으로는 해당 명사구의 방향성을 표시한다. 여기서 방향은 출발점, 목적지, 그리고 출발점과 목적지 사이를 통과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적지로 향해 이동하는 진행방향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이 논문에서 다루는 방향표시 표현어는 주로 진행방향, 출발점, 경로, 목적지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들이다.

한국어에 있어 방향표시 표현어와 관련된 부사어가 이루는 형식은 주로 3 가지가 있다. 명사 뒤에 부사격이 붙은 경우, 명사 뒤에 보조사가 붙은 경우 그리고 일부 구절 표현 등이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4) ㄱ. 나는 학교에 간다.
ㄴ.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간다.

- (5) ㄱ. 마라톤이 학교부터 출발한다.
ㄴ.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간다.

- (6) ㄱ. 하늘을 향하여 포문을 열었다.
ㄴ. 도서관(의) 쪽으로 뛰어간다.

(4-6)의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사어들이다. (4)는 '학교, 집' 등과 같은 명사 뒤에 '-에, -에서' 등 부사격조사를 붙여 부사어가 되는 경우, (5)는 명사 뒤에 '-부터, -까지' 등 보조사를 붙여 부사어가 되는 경우, (6)은 명사와 구절을 결합해서 부사어가 되는 경우이다.

조사들을 두 개씩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다."와 같이 명사 뒤에 조사 '-로부터'를 붙여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이는 격조사 '-로'와 보조사 '-부터'가 결합한 보조사이다. 이런 결합 보조사들은 '-로부터', '-에서부터' 등이 있다.

그리고 (4ㄴ, 5ㄴ)의 예문처럼 "집에서 학교까지"에서의 '-에서 -까지'와 같이 출발점과 목적지를 한 문장에 동시에 표현할 수도 있다. '-까지'는 흔히 시작을 나타내는 '-부터'나 출발을 나타내는 '-에서'가 와서 짹을 이룬다. 이러한 조사들이 이루는 짹은 '-부터 -까지', '-에서 -까지', '-에서 -로' 등이 있다.

이 3 가지 방법을 하나의 문법범주로 통칭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를 의미 기능의 범주로 보아 방향표시 표현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한국어 부사어가 이루는 형식과 비슷하게 명사와 기능형태소인 개사를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 개사는 명사구의 앞에 놓여 명사구를 지배하며 개사구를 이루어 부사어로 사용된다. 중국어는 영어와 같이 SVO 언어이기 때문에 개사는 전치사와 같은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들 개사가 방향표시 표현과 관련되어 부사어로 사용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7) ㄱ. 朝(往)屋子里走。

ㄴ. *朝往屋子里走。

방안으로 간다.

(8) 从家到学校很远。

집부터 학교까지 매우 멀다.

(7-8)의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사어들이다. (7ㄱ)의 예문은 개사 '朝'나 '往'이 명사 앞에 쓰여 부사어가 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조사와와 달리 (7ㄴ)의 예문과 같이 개사들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모든 허사를 중첩할 수 없는 중국어의 고유 특징과 상관있다. 이에 대해서는 2.3절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개사구들끼리 같이 쓰여 짹을 이룰 수

있다. (8)과 같이 "从家到学校"의 '从- 到-'는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짹을 이루는 개사구들은 '从- 到-', '由- 到-' 등이 있다.

앞에서 의미 기능에서 방향성은 진행방향, 출발점, 경로, 목적지 등 4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진행방향은 운동성이 있는 방향과 운동성이 없고 동작만 나타나는 방향을 아우르고 있다. 운동성이 있는 방향은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반면 운동성이 없는 방향은 추상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9) ㄱ. 비행기는 미국으로 날아간다.

飞机向美國飞。

ㄴ. 나를 향해 웃는다.

朝我微笑。

(10) 8시에 학교에서 출발한다.

8点从学校出发。

(11) 우리는 뒷문으로 갔다.

我们从后门走了。

(12) 도서관에 온다.

到图书馆来。

(9-12)는 진행방향, 출발점, 경로, 목적지 방향성 각 의미별로 된 부사어 문장들이다. (9-1)의 예문에서 방향표시 표현어 뒤에 '날아가다, 걸어오다' 등과 같은 운동성이 있는 동사가 쓰이면 운동의 진행방향을 나타낸다. 반면에 (9-2)처럼 방향표시 표현어 뒤에 '웃다, 바라보다' 등과 같은 운동성이 없이 그냥 제자리에 서서 동작하는 동사가 쓰이면 운동의 의미가 없이 단순히 진행방향을 나타낸다. (10)의 방향표시 표현어 뒤에 '출발하다, 시작하다' 등과

같은 동사가 쓰이면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낸다. (11)의 방향표시 표현어 뒤에 '들어가다, 통과하다, 건너다, 지나가다' 등과 같은 동사가 쓰이면 경로의 의미를 나타낸다. (12)의 방향표시 표현어 뒤에 '오다, 가다, 도착하다, 닿다' 등과 같은 동사가 쓰이면 목적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2.2 한국어의 방향표시 방법

부사어는 문장에서 다른 요소를 꾸며주는 수식어의 하나로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법성분이다. 부사어는 대개 용언을 수식하지만,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며 체언을 수식하기도 한다. 부사어는 보통 문장에서 수의적인 요소이나 용언의 성격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부사어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학교문법에서는 '잘 놀다'의 '잘'처럼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기도 하며, '집에서'와 같은 체언의 부사격형, '배운 대로'와 같은 부사성 의존명사 구성, '까맣게'와 같은 용언의 부사형 등을 부사어로 본다. 이 부사어를 만드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ㄱ. 잘, 아주, 매우

- ㄴ. 집에서, 학교에, 집으로
- ㄷ. 배운 대로, 있을 뿐, 주는 만큼
- ㄹ. 까맣게, 많이, 천천히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부사어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그 첫째는 용언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체언이 처격(處格) · 여격(與格) · 조격(造格) 등의 형태로 곡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14)가 그 예들이다.

(14) ㄱ. 까맣게, 예쁘게

- ㄴ. 집에서, 나에게, 나무로서

서정수(1996)에서는 부사어는 형태나 그 성분 구조를 바탕으로 부사, 부사구, 후치사구, 부사절 등이 부사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사는 부사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형태로서 부사구를 이루는 머리어 구실을 한다. 부사

구는 그 머리어인 부사에 다른 단어가 한정된 것으로 부사와 꼭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후치사구는 이른바 부사격조사로 알려진 후치사가 명사구와 결합한 것으로서 서술어에 대해 주격이나 목적격과 다른 사격적 기능을 보이므로, 필수적 문장 성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사어로 보는 것이다.¹⁰⁾ 부사절은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진 절 전체가 부사적 기능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은 서정수(1996)에서 제시된 부사어 예이다.

- (15) ㄱ. 잘, 아주
ㄴ. 아주 열심히, 너무 잘
ㄷ. 지금까지, 어제보다
ㄹ. 남의 도움 없이, 그녀가 왔을 때

명사에 부사격형이 붙는 경우는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사어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부사성 의존 명사의 경우는 의존 명사 자체가 부사로 기능하는 것이어서 부사를 겸하는 '어제, 오늘, 지금' 등과 같은 시간 명사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따라서 이들은 부사 자체로 부사가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구성은 (15-ㄹ)처럼 항상 <관형어+의존명사>의 구성으로 구의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부사절은 단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하위의 부사어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부사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부사어는 부사, 부사격형, 용언의 부사형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사어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요약하면, 부사 자체로 부사어가 되는 경우, 명사에 부사격형을 붙여 부사어가 되는 경우, 용언의 부사형이 부사어가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중국어의 개사구와 대응되는 것은 명사에 부사격형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음에서 이들 부사격형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어

10) 부사격 중에는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준다"와 같이 '에게'는 필수적 여격 구문으로 나타나는 격으로 본다.

의 격조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문법에서는 조사의 종류를 크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분류한다. 격조사는 자립형태소의 문법적 자격을 알려주는 조사이다. 주격, 목적격, 보격, 서술격, 호격, 부사격, 관형격 조사 등이 있다. 보조사는 자립형태소에 부가적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이다. '만, 까지, 도, (이)나' 등이 있다. 접속조사는 두 자립형태소를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이다. '와, 과, 하고, (이)랑' 등이 있다.¹¹⁾

한국어에서 격은 보통 격조사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특정한 격조사는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한국어 격조사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 논의에서는 격조사의 최근 견해인 김원경(2000)과 임동훈(2002)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김원경(2000)에서는 격조사의 고유의미에 의해 격을 판단할 수 있는 격을 본유격 혹은 의미격이라고 정의하였다. 본유격이 실현된 명사구는 의미격 연산 과정에서 적절한 의미기능을 부여받는다. 이때 본유격이나 의미격에 해당하는 격의 형태들은 '에, 로, 와'를 중심으로 한 변이 형태들이며 이들이 부착되는 명사구는 부사어가 된다고 하였다.

임동훈(2002)에서는 격조사는 여러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따라 문법격 조사와 의미격 조서사로 나눈다. 후자에는 '에, 로, 와'가 속한다. 격조사에 대별되는 특수조사를 설정하고 그 하위에 다시 후치사와 첨사를 나누고 있다. 전자에는 '만, 까지, 밖에, 부터, 조차, 처럼, 같이, 보다, 만큼, 뿐, 대로' 등이 속한다.

실은 이 두 연구자의 격에 대한 견해는 거의 같은 것이다. 특히 '에, 로, 와'는 두 연구에서 모두 부사격조사로 보고 있다. 고창수(2007)에서는 후치사를 격조사와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에, 로, 와'는 격조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서정수(1996)에서는 후치사를 부사격조사와 같은 것으로 후치사라고 하였다. 여기에 '처럼, 만큼, 만치, 보다'와 같이 격으로 보기 힘든

11) 남기삼·고영근(1997: 98~105)에서는 한국어 조사를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임홍빈 외(2001: 122~175)에서도 마찬가지의 분류를 취한다.

조사들도 아우르고 있다.

(16) ㄱ. 우리는 어른처럼 행동해야 된다.

ㄴ. 그 나무는 하늘만큼 높다.

ㄷ. 너는 나보다 예쁘다.

(16)과 같이 '어른처럼, 하늘만큼, 나보다' 등이 명사 뒤에 후치사가 붙어 부사어가 되는 예들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격조사는 격이라는 범주와 조사라는 형태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관찰되는 것이다. 중국어의 개사 구문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격조사는 개사구와 대응되지만 그렇지 않은 격조사들도 있다. 반면에 서정수(1996)에서처럼 후치사라는 범주와 대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 조사 부류의 특정 범주가 중국어 개사구에 일관되게 대응된다 고는 보기 힘들다. 일단 한국어의 후치사라는 용어도 학자마다 분류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이다. 다음에서 한국어의 후치사 범주에 대해 살펴보겠다.

후치사는 체언이나 체언과 대등한 말에 후속하여 부사어적인 수식 기능을 하게 만드는 문법 형태이다. 후치사는 스스로 완전한 독립 형식이 되지 못하는 부속어로서 인구어(印歐語)의 전치사(前置詞)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서정수(1996)에서 명사 뒤에 붙는 조사를 후치사로 부른다. 서정수는 이를 부사격조사라고 하지 않고 후치사라고 한 데에 대해서는 다음과 이유를 들고 있다. 이 기능 요소는 단순히 앞 말을 부사어 기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의 구 전체를 수식 기능의 구나 절로 바꾸는 것이므로 부사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 요소는 격을 지배할 수 있어 특정한 격어미 뒤에 연결된다. 예를 들어 '-에게도, -로부터' 등이다. 또 후치사끼리 연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까지만, 만까지도, 대해서만' 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후치사는 부사격조사와 보조사 '-부터, -까지' 등을 포함하게 된다. 결국 이 조사들을 후치사라고 부르면 이 조사들을 머리어로 하는 후치사구는 부사어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원경(2000)과 임동훈(2002)에서는 '에, 로, 와'는 부사격조사로 보았다. 그러나 김원경(2000)에서는 후치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임동훈(2002)에서는 조사는 하위분류한 연구로 격조사에 대별되는 특수 조사를 설정하고, 그 하위 부문으로 후치사와 첨사를 나누고 있다.¹²⁾ 홍사만(1993)¹³⁾에서는 한국어조사는 격조사, 특수조사와 접속조사로 분류하여 한국어조사와 상응하는 중국어 표현 형태를 제시하였다. 격조사의 하위분류인 쳐격 '-에, -에서'에 대응하는 중국어 개사는 '在, 向' 등, 향격 '-(으)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개사는 '向, 往' 등, 시발격 '-에서, -부터'에 대응하는 중국어 개사는 '从', 도달격 '-까지'에 대응하는 중국어 개사는 '到'이라고 하였다. '에, 로, 와' 등은 격조사이지만 '까지, 밖에, 부터, 조차, 처럼, 만큼, 보다' 등은 격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후치사로 통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후치사는 선행 명사에 붙어, 전체 명사구를 부사어로 기능하게 하는 후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부사는 부사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낱말 형태로서 부사구를 이루는 머리어 구실을 한다. 부사구는 그 머리어인 부사에 한정하는 말들이 얹힌 것으로서 역시 부사적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으로, 후치사구는 이른바 부사격조사로 알려진 후치사가 명사구와 결합한 것으로서 부사적 수식 기능을 보이는 것이다.

중국어 개사와의 관계를 따지기 위하여 개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법 요소들을 한 범주로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만'은 보조사이긴 하지만 의미 기능만 나타나고 격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게다가 '만'은 방향성의 의미도 없으므로 목록에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사격조사 목록에서 특정 의미만을 나타내는 목록을 제외하고, 부사격조사 '-에, -로, -와' 등과 일부 보조사 '-부터, -까지'를 더하면 이를 조사들은 중국어의 개사와 대응할 수

12) 첨사는 그 의미가 선행 명사구만을 한정하지 않아 항상 명사구의 맨 뒤에 통합하는 특징이 있다. '은/는, 이야/야, 도, 이라도/라도'가 속한다. 이들이 통합된 명사구는 항상 부사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록에서 제외한다.

13) 슬지엔(1999:407-409)는 홍사만(1993)의 분류에 따라서 한 것이다.

있다.

다음 〈표1〉과 같이 이 논의에서 연구하는 주요 부사격조사와 보조사의 기능을 열거한다.¹⁴⁾

	의미기능
-에	처소, 시간, 원인, 대상, 단위, 상황·환경, 맡는 자리·노릇, 첨가, 열거, 진행방향, 범위
-에서	처소, 출발점, 비교기준, 주격조사, 근거
-(으)로	방향, 경유, 변화의 방향, 재료·원료, 수단·도구, 방식·양상, 원인·이유, 지위·신분·자격, 시간, 한계, 대상
-부터	출발점
-까지	도착점, 범위, 극단

〈표1〉 부사격조사와 보조사의 의미기능

이 부사격조사와 보조사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에', '-에서'와 '-(으)로' 이 3개 부사격조사는 그 형태가 서로 다름에도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반대로 같은 형태임에도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복잡성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 어떤 조사를 사용할지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표1〉을 보면 '-에'와 '-에서'는 '처소'라는 같은 뜻이 있으며 '-에'와 '-(으)로'는 '방향'이라는 같은 뜻이 있다. 그럼에도 '-에'와 '-에서', '-에'와 '-(으)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에'는 동작의 낙차점이나 이동 동작의 귀착점 혹은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반면에 '-에서'는 동작이 시작되는 출발점과 동작이 일어나는 공간의 범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에'는 이동이나 위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쓰이지만 '-에서'는 일반적인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므로 그 밖의 동사와 쓰인다. 이를 이광호(1984)에 따라 의미자질로 보면 '-에'와 '-에서'는 [+Locative]라는 공통된 자질을 갖고 있지만, '-에'는 [+Arrival,

14) 〈표1〉은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Existence]의 자질을 갖는 반면에 '-에서'는 [-Arrival, +Existence]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7) ㄱ. 오후에 도서관에 간다.

ㄴ. 나는 중국에서 왔다.

(18) ㄱ.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기 시작했다.

ㄴ.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17)에서 '-에'나 '-에서'는 '처소'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에'는 '진행방향'이나 '목적지'를 나타내고 '-에서'는 '출발점'이나 '시작점'을 나타낸다. '-에'는 동작의 움직임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고 '-에서'는 움직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계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18 ㄱ)은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한 장소가 학교라는 것을 나타내고 (18 ㄴ)은 학생들이 모이는 행동을 일으키는 장소가 학교라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에'와 '-(으)로'는 같은 '방향'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서로 차이가 있다(이희자 1998). 이동동사와 쓰일 때 '-에'는 도착점을, '-(으)로'는 출발시의 목표점이나 경유지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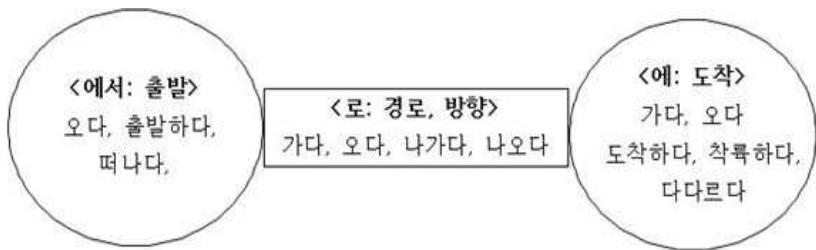
(19) ㄱ. 나는 학교에 간다.

ㄴ. 나는 학교로 간다.

(19)에서 '-에'나 '-(으)로'는 같은 문장에 쓰이더라도 나타내는 의미는 같지 않다. 예문 (19 ㄱ)은 도착하는 동작을 강조하는 것이고 (19 ㄴ)은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강조하는 것이다.

'-에', '-에서', '-(으)로' 각각 갖는 의미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2>

와 같다.¹⁵⁾



〈그림 2〉 방향표시 격조사의 의미

한국어에서의 방향표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즉 부사격조사 혹은 보조사가 붙은 부사구, 그리고 목적격조사나 속격조사가 붙은 명사구와 동사구가 결합한 복합 부사구가 바로 그것이다. 방향성 부사격조사에는 '-(으)로, -에, -에서' 등이 있고 보조사에는 '-부터, -까지, -에까지, -(으)로부터, -에서부터' 등이 있고 복합 부사구에는 '-을/를 향하여, -의 쪽으로'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형식	예시
명사+부사격조사	-_(으)로, -에, -에서
명사+보조사	-부터, -까지, -에까지, -(으)로부터, -에서부터
구절	-을/를 향하여, -의 쪽으로

〈표2〉 한국어 방향표시 방법

〈표2〉에서 보듯이 이 방향표시 방법들을 통해 이루는 표현어가 바로 한국어에서의 방향표시 표현어이다. 이들은 방향의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진행방향

진행방향 의미를 나타나는 방향표시 표현어는 '-(으)로, -에, -을/를 향하

15) 김은주, 2010,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 '로'의 교육 방안, pp.45-49.

여, '-의 쪽으로' 등이 있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 ㄱ. 하늘로 포문을 열었다.

- ㄴ. 싸움터에 나간다.
- ㄷ. 남쪽을 향하여 집을 지었다.
- ㄹ. 큰길 쪽으로 꺾었다.

②출발점

출발점 의미를 나타나는 방향표시 표현어는 '-에서, -부터, -(으)로부터, -에서부터' 등이 있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21) ㄱ. 중국에서 왔다.

- ㄴ. 여기부터 출발한다.
- ㄷ.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다.
- ㄹ. 집 안에서부터 찾는다.

③경로

경로 의미를 나타나는 방향표시 표현어는 '-(으)로'가 있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22) 창문으로 멀리 내다본다.

저 길로 가면 더 가깝다.

④목적지

목적지 의미를 나타나는 방향표시 표현어는 '-(으)로, -에, -까지, -에까지'

등이 있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3) ㄱ. 집으로 돌아왔다.
ㄴ. 우체국에 왔다.
ㄷ. 목적지까지 도착하였다.
ㄹ. 일을 집에까지 가져온다.



2.3 중국어의 방향표시 방법

현대 중국어의 허사(虛詞)란 부사(副詞), 개사(介詞), 접속사(連詞), 조사(助詞), 의성사(擬聲詞), 감탄사(感歎詞) 등 문장의 주요 성분은 아니나 빼놓고는 의미소통이 되지 않는 품사, 즉 단어를 가리킨다. 이는 실사(實詞)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실사는 실질적인 개념을 나타낸 것이며, 허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허사는 약 1,000개가량 있어 실사보다 아주 적지만 사용 빈도수가 높다.

허사는 객체적 개념어의 대가 되는 주체적 정의(情義)만을 나타내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다. 문법범주를 구성하는 어형변화가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 단어에 의해 이루어지는 언어에서는 일부 단어들이 본래의 의미를 차츰 잃으면서 마치 다른 언어의 쿨질에 상당하는 기능으로 쓰이는 일이 흔히 있다. 이것이 곧 허사이며, 문법어 또는 형식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허사는 실사의 대가 되는 개념으로 쓰이면서 자립어와 의존어의 관계에 대체로 상응한다.

의존어는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온전한 관념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자립어에 부속되어 여러 관계적 변이를 나타내는 데 쓰이거나, 주로 관념과 관념 사이의 이어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일에 쓰인다.

허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으로는 어절을 이룰 수 없으므로 한 어절 중에는 반드시 실사가 하나 있고 허사는 없거나, 혹은 하나 또는 그 이상 있을 수도 있다. 실사는 문장이나 구의 주요 성분이 되며, 허사는 문장의 수식 성분이나 첨가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실사는 시대적인 흐름이나 문화의 발달로 수많은 단어가 생겨나는 특징이 있지만 허사는 폐쇄적이라 그 숫자가 거의 변화가 없다. 중첩(重疊)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허사의 또 하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개사는 명사나 대명사로 이루어진 구나 절을 지배하여 주어가 해당 명사구나 절에 대한 방향이나 대상 등을 표현하는 허사를 지칭한다. 대부분의 개사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개사의 문법적인 특징은 동사와 비슷하다.

개사의 이러한 성질은 개사가 지배하는 명사나 대명사를 개사의 목적어로 보게 한다. 개사가 붙은 구나 절은 다시 개사구가 되어 관형어(定语), 부사어(状语), 보어(补语)의 역할을 한다.

(24) ㄱ. 他对國家的热爱非常深。

그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 매우 깊다.

ㄴ. 我从中國來。

나는 중국에서 왔다.

ㄷ. 他把画挂在墙上。

그는 벽에 그림을 걸었다.

ㄹ. 相约在太阳升起的地方见面。

해가 뜨는 곳에서 만나자.

(24)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개사구들이다. 예문 (24-ㄱ)의 개사구는 관형어이며 (24-ㄴ)의 개사구는 부사어이다. (24-ㄷ)의 예문에서 개사구는 보어의 역할을 한다.¹⁶⁾ (24-ㄹ)의 예문에서 개사는 절을 지배하는 경우이다.

개사의 독특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사는 허사이므로 보통 단독적으로 쓸 수는 없고 문장의 주어나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도 없다. 다만 일부 개사는 동사의 용법이 남아 있어서 동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로는 '在, 朝, 向, 往, 隨, 隨着, 对, 为, 給, 跟' 등이 있다.

둘째, 개사는 중첩될 수 없으며 동태조사 '了, 着, 过'와 결합될 수도 없다. 하지만 어떤 개사는 두 자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는데 이때 일 자(一子) 개사 다음에 오는 '了, 着'는 동태조사가 아니라 개사의 고유성분이다.

16) 중국어 보어는 술어가 되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용언 성분으로 충당되며, 앞에 나오는 술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병관 2010). 보어는 술어의 뒤에 위치하여 각종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성분이다.

예를 보면 '为, 为了, 朝, 朝着'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개사는 반드시 명사구나 절을 지배하여 전체 문장의 부사어, 보어, 관형어가 된다.

당연히 방향표시 개사도 개사의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5) ㄱ. 向阳的房子冬天比较暖和。

해를 향한 집은 겨울에 따듯한 편이다.

ㄴ. 我从中國来。

나는 중국에서 왔다.

ㄷ. 飞机飞向美國。

비행기는 미국으로 날아간다.

ㄹ. 我朝着太阳升起的地方奔去。

나는 해가 뜨는 곳으로 달려갔다.

(25)에서 밑줄 친 부분이 방향표시 개사로 된 개사구이다. 예문 (25-ㄱ)의 방향성 개사구는 관형어이며 (25-ㄴ)의 방향성 개사구는 부사어이다. (25-ㄷ)의 방향성 개사구는 보어의 역할을 한다.¹⁷⁾ (25-ㄹ)에 개사는 절을 지배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모두 방향표시 개사가 이런 관형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개사구가 관형어와 보어가 되는 경우는 별도의 제약조건을 따른다.

현대 중국어 개사의 일부는 고대 중국어의 개사를 계승하여 사용하며 일부는 고대 중국어의 동사에서 유래한 것이다.¹⁸⁾ 방향성 개사는 원래 고대 중국

17) 중국어에서 보어는 결과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수량보어, 시간처소보어 등이 있다. 개사가 이루는 개사구는 바로 시간처소보어이다. 문장에서 동사가 이루는 술어에 대해 시간이나 처소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18) 고대 중국어의 개사는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어에서 없었는데 고대 중국어의 동사에서 변화해 왔다. 양진(兩晉)과 남북조(南北朝) 시기에 방향성 개사는 이미 개사로 여겨지고 당(唐)나라, 오대(五代) 시기 때 방향성 개사는 완전히 개사로 사용하였다.

개사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개사의 의미에 따라 분류하기에 있어 来裕询(1920)은 개사구를 시간이나 장소, 원인 등에 기초하여 6 가지로 나누었다. 이 관점은 지금까지의 개사 연구에 계속 영향을 끼쳐 온 것이다. 이후 黎錦熙(1924)에서 개사를 시간장소개사, 원인개사, 방식개사, 대상개사 4 가지로 나누었다. 朴月华 等(2001)에서는 공간개사, 시간개사, 대상개사, 근거개사, 원인개사, 기타 6 가지로 구분하였다.¹⁹⁾ 商務印書館(2005)에서는 방향장소개사, 시간개사, 방식개사, 원인개사, 목적개사, 대상관련개사, 비교개사, 제거개사 등 8 가지로 더욱 세분하였다.

傅雨賢 외(1999)에서는 '被, 叫, 让, 给' 등 같은 개사를 피동개사로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²⁰⁾ 그러나 이런 피동적인 개사는 대상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상개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26) ㄱ. 他对人很热情。

그는 사람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ㄴ. 这个秘密被别人发现了。

개사의 기능	고대 개사의 예시
시간, 정소, 범위	于, 乎, 以, 在, 即, 及, 自, 从, 由, 当, 方, 到, 迨, 逮, 至, 比, 竞, 投, 向, 临
도구, 이유	以, 因, 用, 于
원인	以, 为, 于, 因, 缘
행위의 대상, 시사자	于, 乎, 为, 与, 及, 从

〈표3〉 고대 중국어의 개사

19) 여기서 기타는 비교개사, 제거개사 등을 포함한다.

20) 사실 '叫, 让, 给' 개사는 피동의 뜻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런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개사들을 피동개사로 통칭한다.

이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었다.

ㄷ. 让人们相信我。

사람들이 나를 믿게 만든다.

(26ㄴ, ㄷ)의 예문에서 개사 '被'와 '让'은 (26ㄱ)의 '对'와 같이 동작의 대상을 도입한다. 이런 점에서 이들 개사의 기능은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의에서는 중국어 학교문법과 같이 시간개사, 방향장소개사, 대상범위개사, 근거방식개사, 원인목적개사, 비교개사, 제거개사 7 가지로 구분하기로 하겠다.

본 논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은 방향성 개사이어서 먼저 방향성 개사의 어원적 문제를 보겠다. 방향성 개사 중 흔히 쓰이는 '朝, 向, 往'을 어원적으로 보면 모두 동사에서 발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동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부 개사에 속해서 모두 동사 겸 개사로 사용될 수 있다. 즉 '朝, 向, 往' 이 세 개사는 모두 동사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밑에 예와 같이 (27ㄱ)의 '朝'은 동사이고 (27ㄴ)의 '朝'은 개사이다. (28)과 (29)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7) ㄱ. 房子坐北朝南。

집이 북쪽에 자리잡고 남쪽을 향한다.

ㄴ. 她朝我微笑。

그는 나를 향해 웃는다.

(28) ㄱ. 奋勇向前。

용기를 내어 앞으로 향한다.

ㄴ. 向前辈学习。

선배에게서(로부터) 배운다.

(29) ㄱ. 你往南, 我往北。

너는 남으로 향하고 나는 북으로 향한다.

ㄴ. 我往北走。

나는 북으로 향해 걸어간다.

'向'이 동사로 사용되었던 어원적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向'은 선진(先秦), 양한(兩漢: 서한(西漢)과 동한(東漢)) 시기에 실질적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었다. 이때 '향하다', '직면하다', '가다', '경양(景仰)하다' 등으로 사용된다.

(30) "今西伯昌, 人臣也, 修義而人向之。" 『韓非子·外儲說左下』

지금 서백창은 신하에 불과하지만 바른 길을 걸어 왔기 때문에 인심이 그에게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한비자·외저설좌하』)

양한까지 '向'은 주로 실질적 동사로 사용하며 이때 주어는 보통 사람을 칭하는 명사이다. '向'은 이후에 장소, 방향, 대상, 시간 등 개사의 용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31) "世尊遂向民靈山遙望火坑, 以手指其一指, 火坑變作清涼池。" 『敦煌變文集·悉達太子修道因緣』

세존은 즉시 민령산에 가서 화갱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화갱은 즉시 청량지가 되었다. 『돈황변문집·실달태자수도인연』

(31)의 '向'은 방향성 개사 '向'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向'을 아직 개사로 여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진(兩晉: 서진(西晉)과 동진(東晉))과 남북조(南北朝) 시기에 '向'은 이미 개사로 여겨졌다.

(32) "妒令潛配上陽宮，一生遂向空房宿。" 〈上陽白髮人〉白居易
질투로 몰래 상양궁에 갇혀, 일생을 공방으로 살았다. 〈상양백발인〉백
거이

당(唐)나라 때 '向'은 이미 개사로 사용하였다. (33)의 '向'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3) "一聲似向天來，月下美人望鄉哭。" 〈龍夜吟〉李賀
그 소리 흡사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하고, 달빛 아래 아름다운 여인이
고향을 바라보며 울었다. 〈용야음〉이하

당, 오대(五代) 시기까지 '向'의 개사적 용법은 완전히 정착되었다.

중국어 개사의 이러한 변화 발전은 중세 한국어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²¹⁾
당나라 두보의 시를 통해 살펴보자.

- (34) ㄱ. 從來多古意 (登充州城樓)
네로브터 오매 넷일스랑흐논 뜨디 하 잇노라.
ㄴ. 諸孫賢至今 (送嚴侍郎到縣州同登杜使君江樓宴得心字)
諸孫은 어디로미 이제 나르도다.
ㄷ. 送節向河源 (東樓)
부절가지 날 보내여 河源으로 向흐노다.
ㄹ. 江從灌口來 (野望因過常少仙)
江 로 문 灌口로 셔조차 오노다.

『분류두공부시언해』가 한문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일
반적인 모습과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번역투의 문장도 중세국어의
직관에 맞았기 때문에 번역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분류두공부시언해』의 번

21) 아래의 예들은 모두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4로부터 가지고 온 것이다.

역문도 중세국어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중국어의 개사적 용법은 이미 중세 한국어에서 어느 정도 인지된 것으로 보인다. (34)의 예문들 특히 (34ㄱ, ㄴ)을 보면 당나라 시기만 해도 시간 표현에 대한 것은 개사적 용법보다는 동사적 용법이 우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창수2012: 128-129). 예문 (34ㄱ)의 '從'은 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네'라는 명사를 붙여 가면서 '-로부터'와 같은 보조사에 대응시켰다. 이는 (34ㄴ)의 '至'가 완전히 동사로 대응된 것과 대조된다. 이는 시간부사가 '-까지'와 같은 보조사의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4ㄷ)의 용법은 현대 한국어로서도 마찬가지의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4ㄹ)의 '從'은 중국어의 개사가 한국어의 보조사 '로셔조차'에 완전히 대응된 경우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조사는 중국어의 개사 발전과 더불어 일정한 문법적 범주로 대응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의 방향표시보다는 중국어에서의 방향표시가 훨씬 단순하다. 앞에서 논의한 명사 뒤에 부사격조사와 보조사가 붙은 부사구가 물론이고, 목적격조사나 속격조사가 붙은 명사구와 동사구가 결합한 복합 부사구도 모두 중국어 개사구와 대응한다. 단지 개사는 용법과 특징 등 방면에서 여러 조건이 있으므로, 개사구와 한국어의 방향표시 표현어는 1 대 1로 대응시키기 힘들다.

현대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향장소개사는 '在, 于, 从, 自, 由, 打, 到, 往, 朝, 向' 등이 있다. 그 중에 방향표시 개사는 '朝, 向, 往, 从, 由, 自, 打, 到' 등이 있다(최月华 외, 2001:256). 이 방향표시 개사 뒤에 명사를 붙여 이루는 개사구가 바로 중국어에서의 방향표시 표현어이다. 개사구는 PP=P+NP로 표시되는데 이때 PP는 동사구(V)의 부가어가 된다.²²⁾ 각 개사구와 실현되는 문장 형식은 거의 비슷하지만 개사에 따라 기능과 의미가 다소 다른 점이 있다.

22) "我從中國來。"와 같이 가장 간단한 개사문장으로 예를 보이면, '我'는 주어명사이고, '從中國'는 개사구이고, '來'는 동사이다. 이 문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때 PP는 개사구 (preposition phrase)이다.

이들을 방향의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진행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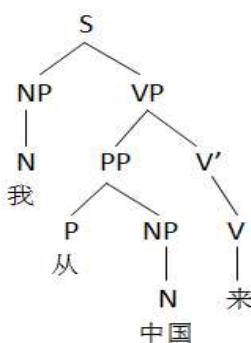
진행방향 의미를 나타나는 방향표시 개사는 '朝, 向, 往' 등이 있다. '朝, 向, 往'의 3 개사는 가장 혼용하기 쉬운 개사들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방향표시 개사 '朝, 向, 往'을 비교하여 보겠다.

'朝'은 동작행위가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며 동작행위 대상의 앞에 쓰인다. 이때 대상은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나 대명사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후속하는 동사는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행위동사가 주로 사용된다. 이때 일 반적으로 '笑(웃다), 招手, 挥手(손을 흔들다), 摆手(손을 짓다), 点头(고개를 끄덕이다), 摆头(고개를 흔들다), 打招呼(인사하다)' 등과 같이 사람의 움직임이나 표정이 있는 동사나 '说(말하다), 喊(외치다), 叫(부르다), 嘴(소리치다), 誓(욕하다)' 등과 같이 소리로 표현되는 동사들을 사용한다. '朝'은 어느 한 곳에 다른 한 곳으로의 운동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는 않고 어느 쪽을 향하는 상태를 표시할 수도 있다.

운동

(35) 朝我走來。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림3〉개사 구문의 구조

정지
↓
ㄴ. 朝我微笑。

나를 향해 웃는다.

(35)는 '朝'가 사용된 예를 보인 것이다. 예문 (35ㄱ)의 동사인 '走'는 주어가 개사구에 대한 운동적 방향을 표시하는 반면 (35ㄴ)의 '微笑'는 움직이지는 않고 단지 개사구의 '대상'을 향하기만 한다.

동사의 성격 차질에 있어 '朝'에 후속하는 동사는 [Human, Act, Move] 또는 [Human, Act, Speech or Expression]에 따라 '朝'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向'은 동작의 방향이나 동작행위의 대상을 모두 표할 수 있다. 그런데 '向'은 지배하는 명사구의 동작은 표시할 때 후속하는 동사는 주로 '说'와 같이 동작성이 없는 동사가 오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말하는 동작 '说(말하다)', 问(묻다), 道歉, 赔礼(사과하다), 提出(제출하다), 打听(알아보다), 诉说(하소연하다), 了解(요해하다), 介绍(소개하다), 指出(지적하다), 要求(요구하다), 请求(청구하다), 表示(표시하다), 报告(보고하다)', 그리고 '要(요구하다), 讨还(받아내다), 借(빌리다), 学习(학습하다), 负责(책임지다)' 등이 있다. 따라서 '向'에 후속하는 동사는 주로 [Human, Act, Speech]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往'은 항상 운동하는 방향을 표시해야 하며 후속하는 동사는 [Human, Act, Move] 자질에 해당한다. 이때 '往' 뒤의 목적어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에 방위사 '上, 下, 里, 外' 등을 포함하거나 단어 '方向, 这儿' 등을 붙여야 한다.

(36) ㄱ. *往屋子走。 / 往屋子外走。

23) 물론 '借(빌리다), 学习(학습하다), 负责(책임지다)' 등의 동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speech]와 관련된 단어들을 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방 밖으로 간다.

ㄴ. *往图书馆走。 / 往图书馆的方向走。

도서관의 방향으로 간다.

ㄷ. *往我看。 / 往我这儿看。

내 곳을 본다.

또한 '往'은 다른 방향표시 개사에 대해 추상명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往'은 또한 동작한 후 물체가 있는 처소를 표시한다. (37)과 (38)은 차례로 '往'이 사용된 예들이다.

(37) 我沒往心里去。

나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

(38) 往脸上贴金。

얼굴에 금을 붙인다.

방향표시 개사 '朝'와 '向'의 용법은 거의 같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朝'과 '向'을 비교해 보자.

'朝, 向' 뒤의 목적어는 공통적으로 방위장소 명사나 사람, 물체 명사들이다. 그러나 '朝'와 '向'은 언제나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장에서 '朝'는 모두 '向'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반면 '向'은 '朝'로 모두 바꾸어 쓸 수 없다. 즉 동작의 방향이나 목적을 표시할 때 '朝'와 '向'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동작행위의 대상을 표시할 때에는 '向'을 '朝'로 항상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방향	목적	대상
'朝'와 '向' 바꿔쓰기	O	O	X
예문	①向(朝)天上开炮. 하늘로 포문을 열었다.	②向(朝)目标努 力奋斗. 목표를 향해 노 력한다.	③朝(向)我招手. 나에게 손을 흔든다. ④向(*朝)外國人学习. 외국인에게 배운다.

〈표4〉 '朝'와 '向'의 비교

예문 (4-④)에서 왜 '向'은 '朝'로 바꾸어 쓰면 안 될까? 이때는 후속하는 동사의 성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向'과 '朝'는 동작행위의 대상을 표시할 때 '朝' 뒤의 동사는 '笑, 招手, 挥手, 摆手, 点头, 摆头, 打招呼'와 같이 인체자세, 몸의 동작을 나타내는 행위동사만 쓸 수 있다. 그러나 '向'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指出, 要求, 请求, 报告, 学习, 负责'와 같은 동사도 쓸 수 있다.

방향표시 개사 '向'과 '往'은 뒤에 오는 명사에 제한이 많다. 즉 '向'과 '往'은 표시 기능에 따라 뒤에 오는 명사의 종류가 다르다. 다음에는 '向'과 '往'을 비교해 보자.

'向'은 구체적인 동작방향이나 추상적인 동작방향을 다 표시할 수 있는데 '往'은 구체적인 동작방향만 표시한다. '向' 뒤의 명사가 추상명사일 때에는 '往'만 쓸 수 있다. 그리고 '向'은 방위나 장소를 다 표시하는 반면 '往'은 장소만 표시한다. '向'은 동작의 목적을 표시하지만 '往'은 동작의 방향을 표시한다. 그리고 '운송하다, 우송(郵送)하다'와 같은 동사 뒤에는 '往'만 쓸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5〉와 같다.

기능	'向'	'往'	예문
구체적 방향	○	○	① 飞机 飞向(往)美國. 비행기는 미국으로 날아간다.
추상적 방향	○	X	② 走向(*往)新生. 새 생명에 간다.
추상적 명사	X	○	③ 我没往(*向)心里去. 나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
방위	○	X	④ 胳膊扭向(*往)后边 팔을 뒤로 돌린다.
장소	○	○	⑤ 向(往)屋子里走. 방안으로 간다.
목적	○	X	⑥ 脚踢向(*往)大门. 발로 대문을 찬다.
운송·우송	X	○	⑦ 包裹寄往(*向)美國. 소포를 미국으로 보낸다.

〈표5〉 '向'과 '往'의 비교

또 '朝, 向, 往'의 차이를 보면, '朝'는 동작의 방향을 표시하기도 하고 운동에 관계없이 쓰인다. 그런데 '往'은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朝' 뒤에 동작의 대상이 있는 반면에 '往' 뒤에 쓸 수 없다. 그리고 '朝' 뒤에 '着'가 있어도 의미가 똑같지만 '往' 뒤에는 '着'을 쓸 수 없다.²⁴⁾ '向'도 '朝'와 마찬가지이다. '往'은 동작성이 없으면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39ㄴ)과 같이 동작행위의 운동 방향을 표시하는 '着'를 붙일 수 없다. (39ㄱ)처럼 '着'는 동태조사로 사용되므로 이것이 (39ㄴ)처럼 하나의 개사 성분이 될 경우에는

24) 여기의 '着'는 동태조사 아닌 2 자 복합개사 '朝着'의 원래 형식이다. 예문 (33ㄱ)의 동태조사인 '着'는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고 (33ㄴ)의 '着'는 개사의 일부이다.

반드시 동사가 동작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39) ㄱ. 空中飞着飞机。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고 있다.

ㄴ. 飞机朝(*往)着美國飞。

비행기는 미국으로 날아간다.

(39)와 같이 '向'이나 '往' 개사구는 동사 뒤에서 보어가 될 수 있다. 이때 개사구는 형식적인 위치만 보면 보어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기능을 보면 부사어와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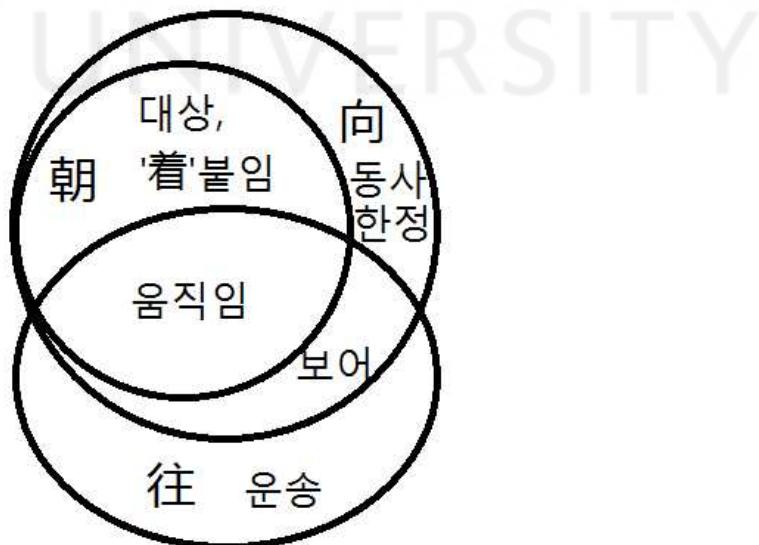
이상 논의한 방향표시 개사 '朝, 向, 往'의 특징과 용법을 종합하여 표로 보면 다음 <표6>과 같다.

	'朝'	'向'	'往'	예문
움직임	관계없음	관계없음	움직임	①朝(向)我微笑。 나를 향해 웃는다. ②*往我微笑。
동작대상	됨	됨	안됨	③朝(向)我招手。 나에게 손을 흔든다. ④*往我招手。
보어	안됨	됨	됨	⑤飞机向(往)美國飞。 P + NP + V

				<p>→ 飞机飞向(往)美國。</p> <p>V + P +NP</p> <p>비행기는 미국으로 날아간다.</p> <p>⑥朝我招手。</p> <p>*招手朝我。</p>
"着"붙임	됨	됨	안됨	<p>⑦飞机向(朝, 往)美國飞。</p> <p>비행기는 미국으로 날아간다.</p> <p>⑧飞机向(朝, *往)着美國飞。</p>

〈표6〉 '朝, 向, 往'의 비교

방향표시 개사 '朝, 向, 往'의 사용 범주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 〈그림 3〉과 같이 그릴 수 있다.



〈그림 4〉 '朝, 向, 往'의 사용 범주

다시 요약하면 방향표시 개사 '朝, 向, 往'은 주어의 운동방향을 표시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이 방향성 개사는 모두 동사에 왔기 때문에 동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朝, 向, 往'의 목적어로 올 수 있는 명사와 지배하는 동사는 나름대로 제한이 있다. 그리고 '往'과 '向'으로 이룬 개사구만 문장에서 동사 뒤에 오고 보어의 역할을 한다.

②출발점

출발점 의미를 나타내는 방향표시 개사는 '从, 由, 自, 打' 등이 있다. 중국어 개사 '从'과 '由'는 각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다.

우선 둘은 모두 동작의 기점을 나타낼 수 있다. '从'과 '由'로 이룬 개사구는 관용어나 부사어가 될 수 있지만 보어가 될 수 없다(최月华 외, 2001: 277-278). 이런 때는 (34)와 같이 '从'과 '由'을 모두 쓸 수 있다.

(34) 8点从(由)学校出发。

8시에 학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동작을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从'을 사용하지 않고 '由'만 사용한다. (35)와 같이 뒤에 명사는 사람일 때 '由'만 사용하는 반면 '从'을 사용하지 못한다.

(35) 会议由社长主持。

*会议从社长主持。

회의는 사장님이 주재한다.

'从, 由'와 비슷한 개사로 '自'와 '打'가 있다. '自'와 '打'는 모두 기점을 표시하는데 '自'는 주로 문어에 쓰이고 '打'는 주로 구어에 쓰인다.

또 개사 앞에 오는 동사에 따라 개사 '自'와 '打'의 쓰임이 한정을 받는다(최月华 외, 2001:279).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8) ㄱ. 列车自(打)首尔出发。

열차는 서울에서 출발한다.

ㄴ. 这是发自内心的话。

*这是发打内心的话。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38ㄱ)의 예문과 같이 개사 '自'나 '打' 앞에 한정적인 동사가 없을 때는 '自'나 '打'를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나 (38ㄴ)의 경우에는 개사 앞에 한정적인 동사 '发'이 오기 때문에 '自'만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사 '自'를 요구하는 동사로 '发自, 来自, 出自' 등을 들 수 있다.

③경로

경로 의미를 나타내는 방향표시 개사는 '从, 由, 打'가 있다. 동작의 경로를 표현하는 데도 차이가 있다. '행동의 경로'를 나타내는 명사는 '일정한 공간'을 지니는 명사일 때 '从'로 표현하며, '평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일 때 '从'과 '由'가 모두 쓰일 수 있다.

(36) ㄱ. 我们从后门走了。

우리는 뒷문으로 갔다.

ㄴ. 我卷起裤腿从江中走过。

나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강 속으로 걸었다.

(37) ㄱ. 车从(由)田野经过。

차가 들판으로 지나갔다.

ㄴ. 游行队伍从(由)市厅前的广场经过。

시위행진은 시청 앞 광장으로 지나갔다.

방향표시 개사 뒤에 (36)의 '门, 江' 등과 같이 일정한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일 때 '从'만 쓰이고, (37)의 '田野, 广场' 등과 같이 평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일 때는 '从'과 '由'가 모두 쓰일 수 있다.

그리고 '打'도 '从'과 같이 일정한 공간이나 평면적 장소 명사 앞에 쓰여 동작이나 행위의 경로를 표시한다.

이상 출발점이나 경로 의미로 볼 때 개사 '从, 由, 自, 打'의 차이점을 종합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 <표7>과 같다.

	'从'	'由'	'自'	'打'
행동의 경로	일정한 공간이나 평면적 장소	평면적 장소	-	일정한 공간이나 평면적 장소
문체	문어/구어	문어/구어	문어/구어	구어
보어	안됨	안됨	됨	안됨
동사한정	-	-	없다	있다

<표7> '从, 由, 自, 打'의 비교

④ 목적지

목적지 의미를 나타나는 방향표시 개사는 '到'가 있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23) ㄱ. 到图书馆来。

도서관에 온다.

ㄴ. 回到家了。

집으로 돌아왔다.



제 3 장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형태 대응

3.1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형태 분류 중심으로 볼 때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는 다음과 같다.

3.1.1 '-에'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에'는 앞선 체언이 문장 속에서 부사어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는 가장 다양한 형태가 있는 부사격조사이다. '-에'의 방향성 의미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개사를 알아볼 것이다.

행동의 진행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쓰일 경우에 '-로 이동하여'의 의미를 표현한다.

(40) ㄱ. 오늘 일찍 학교에 간다.

今天早点到学校去。

ㄴ. 선생님도 도서관에 왔다.

老师也到图书馆来了。

ㄷ. 조금 있으면 런던에 도착한다.

再过一会就到伦敦了。

ㄹ. 언니가 오늘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姐姐今天没到公司上班。

ㅁ. 언니가 회사에 다닌다.

姐姐在公司上班。

여기서의 조사 '-에'는 중국어 개사 '到'와 대응할 수 있고 항상 '가다', '오다' 등 이동을 나타내는 서술어나 '도착하다' 류의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 예문 (40-ㄹ, ㅁ)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드나듦을 나타내는 서술어

와 함께 쓰이는 경우 중국어 개사 '到' 혹은 '在'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1.2 '-에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에서'는 체언 뒤에 붙어 장소나 출발점, 시간·공간적 범위 등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이다.

'-에서'는 어떤 행위나 사건의 공간적 또는 시간적 출발점이나 시작점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로부터', '-를/을 출발/지점으로 하여'의 뜻을 나타내고 책이나 말이나 사실 등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로부터', '-를 출처로 하여'의 뜻을 나타낸다.

(41) ㄱ. 서울에서 한 시에 출발하겠다.

1点从首尔出发。

ㄴ. 방금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刚从工厂回来。

ㄷ. 만리장성은 여기에서 북쪽으로 약 50킬로미터 가면 된다.

从这里朝北大约走50公里就能到长城。

ㄹ. 이 소포는 중국에서 부쳐왔다.

这个包裹是从中国寄来的。/ 这个包裹寄自中国。

위에 제시한 '-에서'는 구체적 장소, 추상적 대상에 붙어 그 상황이 시작된 출발점이나 출처를 나타낸다. 이는 출발점을 나타내는 중국어 개사 '从', '自'와 대응할 수 있다. (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중국어 개사 '从'과 대응하면 '从+장소+동사'로 표현된다. 그리고 예문 (41)처럼 중국어 개사 '自'와도 대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사+自+장소'로 표현된다.

3.1.3 '-(으)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부사격조사 '-(으)로'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바로 진행 방향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42) ㄱ. 학교 방향으로 달려갔다.

向(朝/往)学校方向跑去了。

ㄴ. 그는 의자를 뒤로 뺐다.

他把椅子向(朝/往)后移了。

ㄷ.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向(朝/往)大门方向走去了。

ㄹ. 그는 큰길 쪽으로 꺾었다.

他向(朝/往)大路方向拐了。

(42)는 구체적으로 '-쪽 방향, 방면'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의 쪽으로', '-을/를 향하여'의 뜻을 나타내는 예문들이다. 서술어는 주로 '떠나다', '들다', '꺾어지다', '가다' 등 동사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부사격조사 '-에'로 바꿔 쓸 수 없다.

(43) ㄱ. 우리 집으로 온다.

到我家来。

ㄴ. 내 사무실로 온다.

到我办公室来。

ㄷ.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

进入到下一个阶段了。

ㄹ. 만화를 완전히 버리고 아동문학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不是完全放弃漫画而转回到儿童文学。

(43ㄱ, ㄴ)의 예문들은 지점을 나타내는 말이나 '집'과 같이 일정한 면적을 가진 지점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을 목적지가 되게 하여'의 뜻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이런 서술어는 주로 '가다', '오다', '오르다'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어 조사 '-에'로 대체 할 수 있다. (43ㄷ, ㄹ)의 예문들은 추상적 공간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을 추구하여', '-을 지향하여'의 뜻을 나타내는 예문들이다. 서술어는 주로 '들어서다', '접어들다', '돌아서다' 등으로 이루

어진다. (43)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은 개사 '到'가 쓰인다.

부사격조사 '-(으)로'의 또 하나의 의미는 경로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44) ㄱ. 이 길로 가야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从(由)这条路走才能更快的到达。

ㄴ. 우리는 뒷문으로 갔다.

我们从后门走了。

ㄷ. 차가 들판으로 지나갔다.

车从(由)田野经过。

ㄹ. 시위대열은 시청앞 광장으로 지나갔다.

示威队伍从(由)市政府前的广场经过。

(44)는 행동의 경로를 나타내는 문장들이다. 예문(44 ㄱ, ㄴ)은 '길', '문'과 같은 말에 붙어 '-을/를 통하여'의 뜻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서술어는 이동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표현되는 '걸어 다니다', '건너다', '지나가다' 등으로 이루어진다. (44 ㄷ, ㄹ) 예문은 행동의 구체적인 경로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을/를 통하여'의 뜻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서술어는 주로 '다니다', '지나가다', '날아가다' 등으로 이루어진다.

3.1.4 '-부터'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부터'는 주로 출발점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45) ㄱ. 여기부터 시작한다.

从这里开始。

ㄴ. 집부터 학교까지는 매우 멀다.

从家到学校很远。

ㄷ. 여기부터 시작한다.

由这里开始.

ㄹ. 소문은 인터넷부터 번진다.

消息由网络传开.

ㅁ. 먼 곳부터 가까워진다.

自远而近.

ㅂ. 세계 각지로부터 온다.

来自世界各地.

ㅇ. 너는 어디에서부터 왔니?

你打哪来?

ㅈ. 여기부터 출발한다.

打这出发.

(45)는 행동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45)는 구체적이나 추상적인 장소에 붙어 '-에서 출발하여'의 뜻을 나타낸다. 서술어는 주로 '온다', '출발하다', '번지다' 등으로 이루어진다.

3.1.5 '-까지'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까지'는 주로 도착점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46) ㄱ. 어디까지 닿았니?

到哪了?

ㄴ. 목적지까지 도착하였다.

到目的地了.

(46)은 이동의 도착점 혹은 목적지를 나타내는 문장들이다. (46)에서 '-까지'는 장소 명사에 붙어 '-에 도착했다'의 뜻을 나타낸다. 서술어는 주로 '도착하다', '가다', '닿다' 등 동사로 이루어진다.

3.1.6 '-을/를 향하여'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을/를 향하여'는 어느 한쪽을 정면이 되게 대하는 의미를 가진다. 뒤에 오는 동작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동사가 모두 된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47) ㄱ. 적군이 성을 향하여 공격해 온다.

敌军朝(向/往)城攻击来。

ㄴ. 배우는 관중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다.

演员朝(向)观众挥手。

'-을/를 향하여' 뒤에 오는 동사는 (47ㄱ)에 '오다'와 같이 움직이는 동사도 되고, (47ㄴ)에 '손을 흔들다'와 같이 움직임이 없는 동사도 된다. (47ㄱ)과 같이 뒤에 오는 동사는 움직임이 있는 동사인 경우에는 '-을/를 향하여'는 중국어 개사 '朝, 向, 往'으로 번역할 수 있다. (47ㄴ)과 같이 뒤에 오는 동사는 움직임이 없는 동사인 경우에는 '-을/를 향하여'는 '朝, 向'으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사 '往'이 쓰일 수 없는 원인은 앞에 2.3절에서 논의하였다.

3.1.7 '-의 쪽으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의 쪽으로'는 어느 한 곳을 방향으로 동작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뒤에 오는 동작은 움직임이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동사가 모두 된다. 이때 '의'은 생략이 가능하며, 어떤 문장은 생략한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48) ㄱ. 차를 시내 중심(의) 쪽으로 몰고 간다.

车朝(向/往)市中心的方向开去。

ㄴ. 시선을 문(의) 쪽으로 보낸다.

朝(向/往)门的方向投去视线。

'-의 쪽으로' 뒤에 오는 동사는 (48-ㄱ)의 '가다'와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도 올 수 있고, (48-ㄴ)의 '시선을 보내다'와 같이 움직임이 없는 동사도 올 수 있다. '-을/를 향하여'와 달리 '-의 쪽으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중국어 개사 '朝, 向, 往'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의 쪽으로'의 문장을 (48)과 같이 중국어로 번역할 때 '的方向'을 부가하는 것은 이것으로 구체적인 방향임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3.2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형태 분류 중심으로 볼 때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는 다음과 같다.

3.2.1 '朝'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朝'은 가장 대표적인 방향표시 개사이다. 방향표시 개사 '朝'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법 요소 범주는 아주 넓다. '朝'은 한국어 부사격조사 '-로', 구절 '-을 향하여, -의 쪽으로' 등과 대응할 수 있다. 예문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9) ㄱ. 朝天上开炮。

하늘로 포문을 열었다.

ㄴ. 他朝学校跑去了。

그는 학교로 달려갔다.

(50) ㄱ. 房子朝南建造。

남쪽을 향하여 집을 지었다.

ㄴ. 汽车朝北奔驰。

자동차가 북쪽을 향해 달린다.

(51) ㄱ. 车朝市中心的方向开去。

차를 시내 중심 쪽으로 몰고 간다.

ㄴ. 他朝大路方向拐了。

그는 큰길 쪽으로 꺾었다.

(49)에서 개사 '朝'은 움직임의 방향을 표시할 때 '-(으)로'와 대응한다. (50,

51)과 같이 어느 쪽, 어느 면을 향하여 동작할 때는 '-을/를 향하여, - 쪽으로'가 자주 쓰인다.

3.2.2 '向'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방향표시 개사 '向'은 동작의 방향이나 동작행위의 대상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向'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에는 부사격조사 '-로, -에', 구절 '-을 향하여, -의 쪽으로' 등이 있다. 예문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2) ㄱ. 飞机飞向美國。

비행기는 미국으로 날아간다.

ㄴ. 向屋子里走。

방안으로 간다.

(53) ㄱ. 他走向了社会。

그는 사회에 진출했다.

ㄴ. 走向战场。

싸움터에 나간다.

(54) ㄱ. 面向北站着。

북쪽을 향하여 바라본다.

ㄴ. 窗户向南开。

창문이 남쪽을 향해 있다.

(55) ㄱ. 向西走。

서쪽으로 간다.

↖. 向門的方向投去视线。

시선을 문 쪽으로 보낸다.

(52)에서 개사 '向'은 움직임의 방향을 표시할 때 '-(으)로'와 대응한다. (53)에서는 '向'이 진행방향을 나타내므로 '-에'와 대응한다. (54, 55)과 같이 어느 쪽, 어느 면을 향하여 동작할 때는 '-을/를 향하여, - 쪽으로'가 자주 쓰인다.

3.2.3 '往'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往'은 항상 운동하는 방향을 표시해야 한다. '往'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법 요소는 조사 '-로, -에', 구절 '-을 향하여, -의 쪽으로' 등이 있다. 예문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6) ↗. 往屋子外走。

방 밖으로 간다.

↖. 往图书馆的方向走。

도서관의 방향으로 간다.

(57) ↗. 没往心里去。

마음에 두지 않는다.

↖. 往脸上贴金。

얼굴에 금을 붙인다.

(58) ↗. 人往高处走。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해 간다.

↖. 往后看。

뒤를 향해 바라본다.

(59) ㄱ. 往陆地方向航行。

뭍 쪽으로 배를 움직인다.

ㄴ. 往门的方向看。

문 쪽으로 바라본다.

(56)에서 개사 '往'은 움직임의 방향을 표시할 때 '-(으)로'와 대응한다. (57)에서 '往'은 추상명사인 방향을 표시할 때, 또한 동작한 후 물체가 있는 처소를 표시할 때 '-에'와 대응한다. (58, 59)와 같이 어느 쪽, 어느 면을 향하여 동작할 때에는 '-을/를 향하여, -의 쪽으로'가 자주 쓰인다.

방향표시 개사 '往'는 뒤에 동사가 꼭 움직여야 하며 목적어는 동작대상일 때 쓸 수 없는 점에서 '往'의 사용 범위가 '朝, 向'보다 약간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4 '从'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방향표시 개사 '从'은 동작의 경로를 표시할 수 있는데 뒤에 오는 명사는 '일정한 공간'을 지니는 명사일 때나 '평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일 때 모두 쓰일 수 있다.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로, -에서, -부터' 또 '-로부터, -에서부터'와 대응한다.

(60) ㄱ. 从窗口向远处望。

창문으로 멀리 내다본다.

ㄴ. 车从田野经过。

차가 들판으로(을) 지나갔다.

(61) ㄱ. 从中国来。

중국에서 왔다.

ㄴ. 从首尔站出发。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62) ㄱ. 从这出发。

여기부터 출발한다.

ㄴ. 从家到学校很远。

집부터 학교까지는 매우 멀다.

(63) ㄱ. 从哪来?

어디로부터 왔니?

ㄴ. 信从爸爸那儿寄来。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다.

(64) ㄱ. 雪从天上来。

하늘에서부터 눈이 내려온다.

ㄴ. 从家里开始找。

집 안에서부터 찾는다.

방향표시 개사 '从'은 (60ㄱ)의 '窗口'와 같이 '일정한 공간' 또는 (60ㄴ)의 '田野'와 같이 '평면적인 장소' 앞에 모두 쓰여, 경과함을 나타내며 '-(으)로'와 대응한다. (61~64)에서 '从'은 동작의 기점을 이끌어 냈을 때는 '-에서, -부터, -로부터, -에서부터'와 대응한다.

3.2.5 '由'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방향표시 개사 '由'는 동작의 경로를 표시할 수 있는데 뒤에 오는 명사는 '일정한 공간'을 가지는 명사일 때는 쓰일 수 없고 '평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일 때 쓰일 수 있다. '由'도 '从'과 같이 '-로, -에서, -부터' 또 '-로부터, -에서부터'와 대응한다.

(65) ㄱ. 示威游行由市政府前的广场经过。

시위행진은 시청 앞 광장으로 지나갔다.

ㄴ. 车由田野经过。

차가 들판으로 지나갔다.

(66) ㄱ. 由东到西查看。

동쪽에서 서쪽까지 살펴본다.

ㄴ. 火车由首尔出发。

열차는 서울에서 출발한다.

(67) ㄱ. 马拉松由这里出发。

마라톤은 여기부터 출발한다.

ㄴ. 消息由网络传开。

소문은 인터넷부터 번진다.

(68) ㄱ. 由心里发出的声音。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이다.

ㄴ. 由表及里地认识。

표면적인 현상에서부터 사물의 본질까지 인식하다.

(65)에서 방향표시 개사 '从'은 '广场, 田野' 등과 같이 '일정한 공간'을 표시하는 명사가 아닌 '평면적인 장소' 앞에 쓰여 경과함을 나타낼 때 '-(으)로'와 대응한다. (66~68)의 예문에서 '从'은 동작의 기점을 이끌어 낼 때는 '-에서, -부터, -로부터, -에서부터'와 대응한다.

3.2.6 '自'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방향표시 개사 '自'는 기점을 표시하며 주로 문어에 쓰인다. '-에서' 또 '-로 부터, 에서부터'와 대응한다. 또한 '自'를 사용하는 개사구는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문어에서 자주 보인다.

(69) ㄱ. 自南海还。『为学一首示子侄』清·彭端淑

남해에서 돌아왔다.

ㄴ. 出自东方。『诗经』〈邶风·日月〉

동방에서 나온다.

(70) ㄱ. 自远而近。 (古文)

먼 곳에서부터 가까워진다.

ㄴ. 来自世界各地。

세계 각지로부터 온다.

(69)와 같은 고문에서 '自'는 동작의 출처를 표시할 때 '-에서'와 대응한다.

(70)에서 '自'는 '-(으)로부터, -에서부터'와 대응할 수도 있다. (69ㄴ, 70ㄴ)에서 '自'로 이루어지는 개사구 '自东方, 自世界各地'는 문장에서 보어의 역할을 한다.

3.2.7 '打'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방향표시 개사 '打'는 기점이나 경로를 표시하며 주로 구어에 쓰인다.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인 '-로, -에서' 또 '-로부터, -에서부터' 구문과 대응한다.

(71) ㄱ. 打城里回来。

시내에서 돌아왔다.

ㄴ. 打韩国来。

한국에서 왔다.

(72) ㄱ. 你打哪来?

너는 어디로부터 왔니?

ㄴ. 打这出发。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73) ㄱ. 阳光打窗户射进来。

햇살이 창문으로 들이친다.

ㄴ. 打小路走更近一些。

오솔길로 가면 조금 더 가깝다.

(71, 72)에서 '打'는 동작이나 행위가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낸다. 일상생활 구어인 경우에는 '-에서, -(으)로부터, -에서부터'와 대응한다. (73)에서 '打'는 동작의 노선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보통 '-(으)로'와 대응한다. (73 ㄱ)의 '窗户'와 같이 '일정한 공간' 또는 (73 ㄴ)의 '路'와 같이 '평면적인 장소' 앞에 모두 쓰인다.

3.2.8 '到'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방향표시 개사 '到'는 가장 대표적인 도착점을 나타내는 개사로 한국어 방향 표시 표현어 '-에, -로, -까지' 또 '-에까지'와 대응한다. 그리고 '到'가 선행하는 개사구는 문장에서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74) ㄱ. 到图书馆来。

도서관에 온다.

ㄴ. 来到邮局。

우체국에 왔다.

(75) ㄱ. 到学校去了。

학교로 갔다.

ㄴ. 回到家了。

집으로 돌아왔다.

(76) ㄱ. 到哪了?

어디까지 닿았니?

ㄴ. 到目的地了。

목적지까지 도착하였다.

(77) ㄱ. 일을 집에까지 가져온다.

工作带到家里。

ㄴ. 머리카락을 어깨에까지 늘어뜨리다

头发垂到肩膀。

(74)에서 방향표시 개사 '到'는 이동의 도착점 혹은 목적지를 나타낼 때 '-에'와 대응하며 (75)에서 이동의 방향을 나타낼 때 '-(으)로'와 대응한다. (74 ㄴ)과 (75 ㄴ)에서 'V+到+NP' 구문 형식 중의 '到+NP'는 보어이다. (76)과 (77)에서도 이동의 도착점 혹은 목적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到'는 '-까지, -에까지'와 대응한다.

이상 살펴본 중국어의 방향표시 개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들을 총괄해 보면 다음 <표8>로 나타낼 수 있다.

방향표 시개사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	의미 기능	제약조건	비고
朝	-(으)로	방향		동작의 방향이나 동작행위의 대상을 표현한 다.
	-을/를 향하여	방향		
	-의 쪽으로	방향		
向	-(으)로	방향		운동하는 방향 을 표현한다. 사 용 범위가 '朝, 向'보다 좁다.
	-에	방향	뒤에 방향이나 구체적인 명사이 어야 한다.	
	-을/를 향하여	방향		
	-의 쪽으로	방향		
往	-(으)로	방향	뒤에 구체적인 방향이어야 한다.	운동하는 방향 을 표현한다. 사 용 범위가 '朝, 向'보다 좁다.
	-에	방향	뒤에 추상적인 명사는 쓰일 수 있는데 추상적인 방향은 안 된다.	
	-을/를 향하여	방향	뒤에 구체적인 방향이어야 한다.	
	-의 쪽으로	방향	뒤에 구체적인 방향이어야 한다.	

从	-(으)로	경로		
	-에서	출발점		
	-부터	출발점		
	-로부터	출발점		
	-에서부터	출발점		
由	-(으)로	경로	뒤에 오는 명사는 평면적인 장소 이어야 한다.	
	-에서	출발점		
	-부터	출발점		
	-로부터	출발점		
	-에서부터	출발점		
自	-에서	출발점	주로 문어에 쓰인다.	
	-로부터	출발점		
	-에서부터	출발점		
打	-(으)로	경로	주로 구어에만 쓰인다.	
	-에서	출발점		
	-로부터	출발점		
	-에서부터	출발점		
到	-에	목적지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으)로	방향		
	-까지	목적지		
	-에까지	목적지		

〈표8〉 방향표시 개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비교

제 4 장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체계적 대응

4.1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의미기능 비교

앞에서 언급한 듯이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와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는 같은 의미기능에서도 무조건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문장에서 제한을 받는데 동사의 성질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다르다. 먼저 '-에'에 대응하는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기능과 용법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9〉와 같다.

부사격 조사	개사	의미기능	용법	예문
-에	到	목적지, 반복적 드나듦	뒤에 동사는 반드시 '오다'나 '가다' 등 이 동을 나타내는 동사 여야 된다.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반복 적으로 드나듦을 나 타내는 경우에 쓴다.	그는 도서관에 왔다. 他 <u>到</u> 图书馆来了。 언니가 오늘 회사에 가지 않았다. 姐姐今天没 <u>到</u> 公司 去。
	向	진행방향	방향이나 구체적인 명사 앞에 쓰인다.	그는 사회에 진출했 다. 他 <u>走向</u> 了社会。
	往	진행방향	구체적인 방향이나 추상적인 명사 앞에 쓰인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沒 <u>往</u> 心里去。

〈표9〉 '-에'와 개사의 용법

〈표9〉에서 보듯이 '-에'는 목적지의 의미기능을 표시할 때 개사 '到'와 대응하고 방향의 의미기능을 표시할 때 개사 '向', '往'과 대응한다. '-에'가 '到'와 대응할 때 제한조건은 뒤에 오는 동사가 반드시 '오다'나 '가다' 등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여야 된다는 것이다. '向'과 대응할 때는 앞 명사가 방향 혹은 구상 명사이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가진다. '往'과 대응할 때는 앞 명사가 구체적인 방향이나 추상적인 명사일 때가 많다.

'-(으)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기능과 용법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10〉과 같다.

부사격 조사	개사	의미기능	사용 방법	예문
-로	朝	진행방향		그는 나에게로 걸어온다. 他朝我走来。
	向	진행방향		하늘로 포문을 열었다. 向天上开炮。
	往	진행방향	'往' 뒤의 목적어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에 방위사 '上, 下, 裡, 外' 등을 포함하거나 단어 '方向, 这儿' 등을 붙여야 한다.	나는 도서관 쪽으로 걸어간다. 我往图书馆的方向走去。

	从	경로	'일정한 공간'의 경로와 '평면적'의 경로를 나타내는 경우에 모두 쓰인다.	나는 뒷문으로 갔다. 我从后门走了。
	由	경로	'평면적 장소' 경로를 나타내는 경우만 쓰인다.	시위행진은 시청 앞 광장으로 지나갔다. 示威游行由市政府前的广场经过。
	打	경로	구어에 경로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인다.	오솔길로 가면 조금 더 가깝다. 打小路走更近一些。
	到	진행방향		나는 학교로 간다. 我到学校去。

〈표10〉 '-로'와 개사의 용법

〈표10〉에 보듯이 '-로'가 방향의 의미기능을 표시할 때는 개사 '朝', '向', '往', '到'와 대응하고, 경로의 의미기능을 표시할 때는 개사 '从', '由', '打'와 대응한다. '-로'가 '往'과 대응할 때 제한조건은 다음 목적어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인 경우 방위사 '上, 下, 里, 外' 등을 포함하거나 '方向, 这儿' 등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由'와 대응할 때는 앞의 장소명사가 '평면적 장소'인 경로를 나타내는 명사이어야 하는 제한 조건을 가진다. '从', '打'와 대응할 때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打'도 '从'과 비슷한데 주로 구어에 쓰인다.

'-에서'에 대응하는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기능과 용법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11〉과 같다.

부사격 조사	개사	의미 기능	용법	예문
-에서	从	출발점	일반적으로 '从+장소+동사' 형식으로 표현된다.	나는 중국에서 왔다. 我从中國來。
	由	출발점	일반적으로 '由+장소+동사' 형식으로 표현된다.	열차는 서울에서 출발한다. 火车由首爾出发。
	自	출발점	일반적으로 '동사+自+장소' 형식으로 표현된다.	나는 중국에서 왔다. 我来自中国。
	打	출발점	주로 구어에 쓰인다.	시내에서 돌아왔다. 打城里回来。

〈표11〉 '-에서'와 개사의 용법

〈표11〉에 보듯이 '-에서'는 주로 출발점의 의미기능을 표시하는데, 개사 '从', '由', '自', '打'와 대응한다. '-에서'가 개사와 대응할 때 제한조건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항상 고정된 개사구 구문 형식을 취한다. '从' 개사구는 일반적으로 '从+장소+동사' 형식으로, '由' 개사구는 '由+장소+동사' 형식으로, '自' 개사구는 '동사+自+장소' 형식으로 표현된다. '打'도 '从'과 비슷한데 주로 구어에 쓰인다.

'-부터', '-까지'에 대응하는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기능과 용법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12〉와 같다.

보조사	개사	의미기능	용법	예문
-부터	从	출발점	일반적으로 '从 + 장소 + 동사'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는 집에서부터 걸어왔다. 他从家走来了。
	自	출발점	일반적으로 '동사 + 自 + 장소' 형식으로 표현된다.	세계 각지로부터 온다. 来自世界各地。
	由	출발점	일반적으로 '由 + 장소 + 동사' 형식으로 표현된다.	경기는 여기부터 출발한다. 比赛由这里出发。
-까지	到	목적지		그는 병원까지 걸어왔다. 他走到医院来了。

〈표12〉 '-부터', '-까지'와 개사의 용법

〈표12〉에 보듯이 '-부터'는 주로 출발점의 의미기능을 표시하는데 개사 '从', '由', '自'와 대응하고 '-까지'는 주로 목적지의 의미기능을 표시하는데 개사 '到'와 대응한다. '-부터'도 개사와 대응할 때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지만 항상 고정된 구문 형식을 취한다. '从' 개사구는 일반적으로 '从+장소+동사' 형식으로, '由' 개사구는 '由+장소+동사' 형식으로, '自' 개사구는 '동사+自+장소' 형식으로 표현된다.

'-을/를 향하여', '-의 쪽으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기능과 용법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13〉과 같다.

구절	개사	의미기능	용법	예문
-을/를	朝	진행방향		배우는 관중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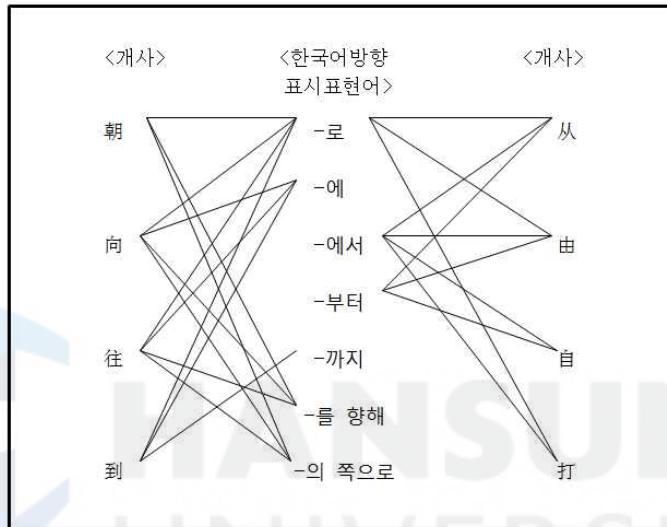
향하여				서 손을 흔들었다. 演员朝观众挥手。
	向	진행방향		배우는 관중을 향해 서 손을 흔들었다. 演员向观众挥手。
	往	진행방향	뒤에 동사가 움직임이 있는 경우	적군이 성을 향하여 공격해 온다. 敌军往城攻来。
-의 쪽으로	朝	진행방향		시선을 문의 쪽으로 보낸다. 朝门的方向投去视线。
	向	진행방향		차를 시내 중심의 쪽으로 몰고 간다. 车向市中心的方向开去。
	往	진행방향		도서관 쪽으로 걸어 간다. 往图书馆的方向走去。

〈표13〉 '-을/를 향하여', '-의 쪽으로'와 개사의 용법

〈표13〉에 보이듯이 '-을/를 향하여', '-의 쪽으로'는 주로 방향의 의미기능을 표시하는데 개사 '朝', '向', '往'과 대응한다. '-을/를 향하여'는 '往'과 대응할 때 제한조건은 다음 동사가 운동성이 있는 움직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 쪽으로'와 '朝', '向', '往'는 언제나 대응할 수 있다.

4.2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종합적 대응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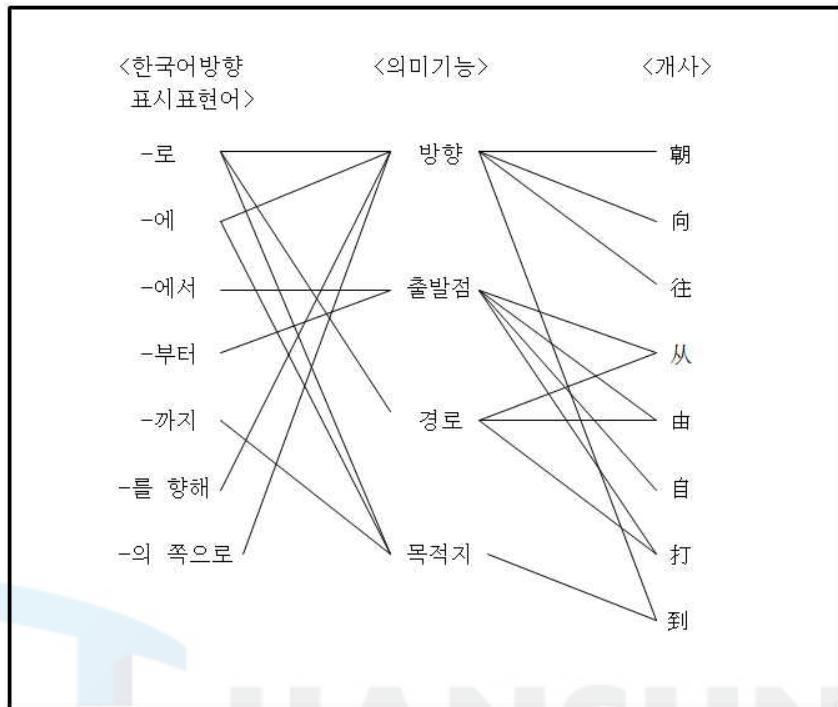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논의한 2장과 3장의 내용, 즉 한국어에서 방향표시 표현이 이루어진 부사격조사, 보조사, 일부 구절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이 이루어진 개사 8개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대응관계

이 그림을 보면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와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대응 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 개사 '朝'에 대응하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는 '-로', '-를 향해', '-의 쪽으로' 등이 있고, '从'에 대응하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는 '-로', '-에서', '-부터' 등이 있다. 거꾸로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 '-로'는 중국어 개사 '朝', '向', '往', '到', '从', '由', '打' 등과 대응하고,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 '-에'는 중국어 개사 '向', '往', '到' 등과 대응한다.

방향성의 의미기능 별로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와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대응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한·중 방향표시 표현어의 의미기능별 대응관계

〈그림 6〉에서 보이듯이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와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의 형태 대응뿐 아니라, 의미기능도 이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향'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에는 '-로', '-에', '-를 향해', '-의 쪽으로' 등이 있으며,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에는 '朝', '向', '往', '到' 등이 있다. 또 '출발점'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에는 '-에서', '-부터' 등이 있으며,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에는 '从', '由', '自', '打' 등이 있다. 하지만 같은 의미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와 중국어 방향표시 표현어는 무조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로'가 '방향'의 의미기능을 표시할 때 '朝', '向', '往', '到'와 모두 대응하는 관계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朝'가 '방향'의 의미기능을 표시할 때도 '-로', '-에', '-를 향해', '-의 쪽으로'와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는 양 언어의 고유한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4.1에서 언급한 바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많은 의미기능 중에 '경로' 의미기능을 보이

는 문장에서 한국어는 하나의 방향표시 표현어로 표현하는데 중국어는 '从, 由, 打' 3 개 개사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즉 '경로'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하나의 방향표시 표현어 '-(으)로'는 단독으로 여러 개의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에 대응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 격조사 '-(으)로'의 의미 기능적 외연이 넓어서 여러 가지 방향 의미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중국어의 개사는 개체적이므로 각 방향 의미에 따라 각각 다른 어휘 형태를 취해 분화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로'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는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보다 의미기능의 부담량이 많고 의미장도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목적지'를 보이는 문장에서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는 '-(으)로, -까지'가 붙은 명사구로 표현되는데, 중국어에서는 방향표시 개사 '到'만 단독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목적지'의 의미기능을 보이는 문장에서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 '-(으)로, -까지'가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 '到'에 대응될 수 있지만 '到'는 단독으로 '-(으)로, -까지'에 대응될 수 있다. 이에 '-(으)로, -까지'의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 '到'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 '-(으)로, -까지'보다 의미기능의 부담량이 많고 의미장도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의미기능을 보이는 문장에서 한국어에서도 중국어에서도 모두 2 가지나 2 가지 이상의 방향표시 표현어와 개사로 표현된다. 다시 말하면 이 의미기능들을 보이는 문장에서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도 중국어 개사도 유의 관계를 보이는 2 가지 또는 이상의 방향표시 표현어와 개사가 서로 대응된다.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와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의 의미기능이 비슷하지만 1 대 1로 대응이 그리 많지 않다. 이는 통사론적, 의미론적인 제약 관계로 인해 대부분 경우에 양자는 단독으로 완벽하게 대응될 수 없다.

제 5 장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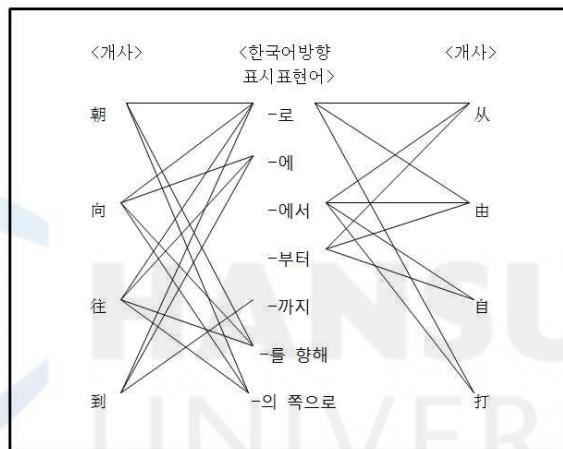
한국어 부사어를 이루는 한 성분인 부사격조사, 보조사와 구절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바로 중국어 부사어를 이루는 한 성분인 개사구이다. 한국어 부사격조사는 체언에 붙어 '장소, 시간, 대상, 도구와 원인' 등과 관련된 부사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중국어 개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또는 명사구 앞에 위치하여 '장소, 시간, 방향, 방시, 대상, 원인' 등의 각종 문법 의미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 조사나 구절과 중국어 개사는 모두 명사구에 붙어 쓰이는데, 위치에 있어 조사나 구절은 명사 뒤에 붙는 후치적인 표지이고 개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전치적인 표지이다.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보통 조사가 붙은 부사어가 많이 출현한다. 따라서 연구의 편의상 해당 조사와 개사를 연구대상으로 정한 후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현대조를 위해 우선 각 조사와 개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분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한국어 부사어와 중국어 부사어의 비대칭 현상에 주목하여 양어 방향성 부사어의 표시 방법을 먼저 논의하였다. 그 다음에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정의 및 분류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부사어와 중국어 부사어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한국어 부사어의 설정 기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부사어를 형태상의 기준으로 나눈 분류에 근거하여 방향성 부사격조사, 보조사나 구절로, 즉 방향표시 표현어로 된 부사어를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는 그것이 붙는 체언으로 하여금 부사어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형태가 많고 그 의미가 또한 다의적이어서 그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조사는 연구자에 따라 명칭 및 분류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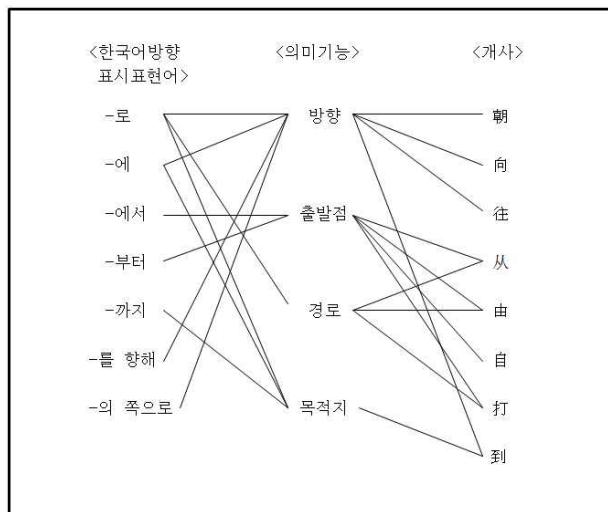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많은 부사격조사와 보조사를 모두 열거하지 않고 그 중의 방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방향성 부사격조사와 보조사를 대표로 뽑아 일부 구절과 같이 이루는 방향표시 표현어에 대응되는 중국어 개사를 중심으로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어 방향표시 조사들 간의 차이점을 비

교하고,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 사용 방법과 제한 조건도 비교하였다. 한국어의 방향성 의미기능에 따라 부사어는 각기 중국어 개사로 된 문장성분과의 대응관계를 예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2장, 3장과 4장에서는 방향성 부사어가 된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와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의 대응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와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의 대응관계와 방향성의 의미기능 별로 대응관계가 <그림 5-6>과 같다.



<그림 5> 방향표시 표현어의 대응관계



<그림 6> 의미기능별 대응관계

이 중에서 '경로'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하나의 방향표시 표현어 '-(으)로'는 단독으로 여러 개의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에 대응될 수 있다. 이에 '경로'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는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보다 의미기능의 부담량이 많고 의미장도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적지'의 의미기능을 보이는 문장에서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 '-(으)로, -까지'가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 '到'에 대응될 수 있지만 '到'는 단독으로 '-(으)로, -까지'에 대응될 수 있다. 이에 '-(으)로, -까지'의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 '到'는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 '-(으)로, -까지'보다 의미기능의 부담량이 많고 의미장도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의미기능을 보이는 문장에서 한국어에서도 중국어에서도 모두 2 가지나 2 가지 이상의 방향표시 표현어와 개사로 표현된다. 다시 말하면 이 의미기능들을 보이는 문장에서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도 중국어 개사도 유의 관계를 보이는 2 가지 또는 이상의 방향표시 표현어와 개사가 서로 대응된다. 한국어 방향표시 표현어와 중국어 방향표시 개사의 의미기능이 비슷하지만 1 대 1 대응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두 언어의 부사어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을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 방향성 부사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과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양어의 방향 표시 표현어들을 학습할 때 각 표현들을 모어와의 관련성을 통해 쉽게 또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한국어 부사어와 중국어 부사어 전체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지 못하였다. 양국 언어 학습자들이 공부할 때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비, 2009,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 연구 -'-로, -에, -에서, -에게'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창수, 2012, "한국어 후치사와 중국어 개사의 단어적 성격에 대하여". 『국어 교육학연구』, 제45집, 132-150.
- 김원경, 2009, 『한국어의 격』, 박문사.
- 김은주, 2010,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 '로'의 교육 방안",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 고영근, 1997,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두보, 『분류두공부시언해 14(영인본)』, 흥문각.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슬지엔, 2009,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금평, 2008, "한·중 부사어의 비교연구 -부사와 부사격 체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봉, 2008,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응관계 연구 '~에, ~에서, ~에 게'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 1984, "처격조사 '에', '에서'의 의미와 그 통합양상". 『語文學論叢』, 3, 87-105.
- 이희자, 1998, 『사전식 텍스트 분석적 국어 조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 임동훈, 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119-154.
- 임홍빈 외, 2001, 『바른 국어생활과 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p. 122~175.
- 진다위, 2011, "한·중 부사어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배, 1977, 『우리말본』, 정음사.
- 한상, 2011, "중국어 보어구문을 활용한 한국어 동사구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옥, 2009, "한국어 조사 '-로', '-에'와 중국어 전치사 '到'의 대조 연구 -방
향의미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숙, 2009,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에서', '에게', '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
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 黎锦熙, 1924, 『新著国语文法』, 湖南教育出版社.
- 李谱英, 1983, 『现代汉语常用虚词选释』, 广西人民出版社.
- 刘月华, 潘文娱乐, 故舞, 2001,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 傅雨贤, 周小兵, 李炜, 范干良, 江志 等, 1999, 『现代汉语介词研究』, 中山大学出版社.
- 金昌吉, 1996, 『汉语介词和介词短语』, 南开大学出版社.
- 柯润兰, 2006, 『介词“向”的认知考察』, 云南师范大学学报.
- 马贝加, 1999, 『处所介词“向”的产生及其发展』, 语文研究.
- 王自强, 1984, 『现代汉语虚词用法小词典』, 上海辞书出版社.
- 张俐, 2001, 『介词“向、往、朝”功能比较』, 河南大学学报 第5期 (社会科学版)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2005, 『现代汉语词典』第五版, 商务印书馆.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Directional Express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Shao, Lin

Major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It is difficult for Chinese student to study Korean language sinc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grammar. One of the differences accurse when match Korean adverb phrases with the corresponding Chinese expressions. Korean postpositions, which forms adverbial phrases, are different from Chinese preposition or co-verb. On this point, finding out the differences and the similarities between two languages' adverbial phrase especially directional expressions, and observing the matching rules of each other is meaningful. Korean's adverbial phrase is materialized with adverb and adverbial postposition etc, which causes Chinese learners hard to study this systematically. And this also makes Korean learners hard to learn Chinese. Lack of understanding on preposition of Chinese often can be found on Korean learners. it is due to Chinese preposition's variety and mixture usage. And the inverse is the same case.

This thesis is focused on this situation, analyzed the Chinese

preposition expressing directions that matches with the counterpart Korean adverbial postposition which is become one form of Korean adverbial phrase, and find out the systematic correspondence of Korean adverbial postposition and Chinese preposition's counterparts. This thesis studied Korean and Chinese adverbial phrase for directional expressions systematically first. Through having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postposition and some matching Chinese preposition, We can avoid the misleading linguistic knowledge about the directional expression of each language corresponding.

KEYWORDS : Korean, Chinese, Directional Expression, Postposition, Comparison, Corresponding

